

2025 통일의식조사

**이재명 정부 출범과**

**신냉전 위기:**

**대북정책 기대와 전망**

2025년 10월 1일(수) 14:00~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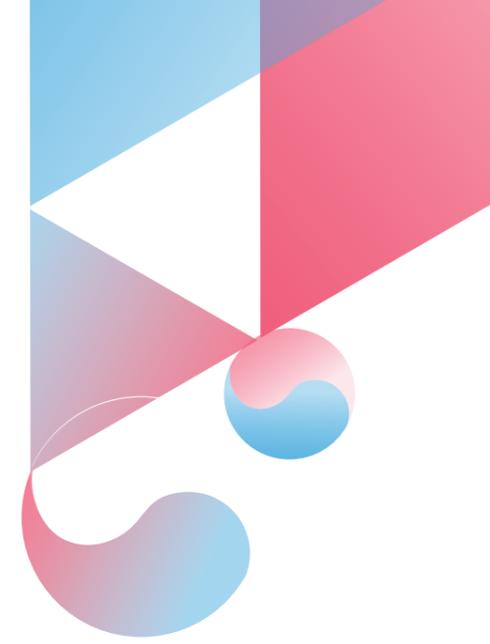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101동) 삼익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5 통일의식조사

# 이재명 정부 출범과 신냉전 위기: 대북정책 기대와 전망



제1부 기초분석		사회: 윤지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14:00~15:30	발표1 통일인식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발표2 북한인식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
	발표3 대북정책인식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
	발표4 북한이탈주민인식	김영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발표5 주변국인식	이유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토론	김택빈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조교수) 박민주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제2부 심화분석		사회: 윤지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15:45~16:50	발표1 통일·북한인식과 제21대 대통령선거 선택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2 남북한 핵인식 추세와 전망	조현주 (연세대학교 강사)
	토론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정성철 (명지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제3부 종합토론		사회: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16:50~17:50	토론	정기웅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교수) 송영훈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현경 (전 MBC 통일방송연구소 소장) 김민서 (조선일보 기자)
17:50~18:00	폐회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yoochul.lee@snu.ac.kr)에게 연락 바랍니다.



사전참가 신청

## 목차

<b>제1부 기초분석   사회: 윤지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b> .....	<b>7</b>
<b>발표1 통일인식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b> .....	<b>9</b>
<b>발표2 북한인식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b> .....	<b>25</b>
<b>발표3 대북정책인식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b> .....	<b>35</b>
<b>발표4 북한이탈주민인식   김영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b> .....	<b>51</b>
<b>발표5 주변국인식   이유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b> .....	<b>63</b>
<b>토론   김택빈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조교수), 박민주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교수)</b> .....	<b>77</b>
<b>제2부 심화분석   사회: 윤지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b> .....	<b>81</b>
<b>발표1 통일·북한인식과 제21대 대통령선거 선택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b> .....	<b>83</b>
<b>발표2 남북한 핵인식 추세와 전망   조현주 (연세대학교 강사)</b> .....	<b>97</b>
<b>토론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정성철 (명지대 공공인재학부 교수)</b> .....	<b>107</b>
<b>제3부 종합토론   사회: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b> .....	<b>111</b>
<b>토론   정기웅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교수), 송영훈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b> .....	<b>113</b>
김현경 (전 MBC 통일방송연구소 소장), 김민서 (조선일보 기자)	



# 제1부 기초분석

사회: 윤지현(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 발표1. 통일인식

김범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 통일에 대한 인식 (요약문)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 자유전공학부 교수)

## 1.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

-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41.1%로 2024년(36.9%)에 비해 4.2% 증가한 반면 '전혀'와 '별로'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비중은 30.4%로 2024년(35.0%)에 비해 4.6% 하락함
- 특히 '진보'층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2024년 39.2%에서 2025년 51.1%로 11.9% 증가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은 2024년 37.3%에서 2025년 23.3%로 14.0% 하락함
- 그러나 20대(19~29세)의 경우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4.4%에 불과한 반면 '별로'와 '전혀'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0.7%로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섬

## 2. 남북이 분단된 '현재대로가 좋다'

- 통일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점진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의 비중은 47.4%를 차지하고 있으나 남북이 사실상 2개 국가로 분단된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 비중 또한 30.6%에 달하고 있음
- 특히 20대와 30대에서 '현재대로가 좋다'라는 응답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응답을 합할 경우 각각 56.7%와 54.2%를 차지

## 3. 통일은 '불가능하다'

- 통일 가능 시기와 관련하여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35.6%에 달하고 있으며, '30년 이상'이라는 응답도 28.6%에 달해 둘을 합칠 경우 64.2%에 달함
- 반면 '30년 이내'는 모두 포함하여 35.8%에 불과함

#### 4. 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는가?

- ▶ 경제적 부담
  -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33.0%가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꼽고 있으며, 29.5%가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를 꼽고 있음
- ▶ 기대 이익 하락
  - 올해 조사에서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매우'와 '다소'를 합해 53.6%로 2024년 43.0%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남한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 또한 46.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 또한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2.8%인 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77.2%에 달하고 있음
- ▶ 사회문제 악화 우려
  - 또한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와 관련하여 통일이 이념갈등, 범죄문제, 지역갈등, 빈부격차, 부동산투기 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0%를 넘어서고 있음

#### 5. 통일한국의 체제와 통일정책의 시급성

- 통일을 이루기 위해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로 북한 비핵화, 군사적 긴장해소, 북한의 인권 개선 등의 순서로 인식
-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와 관련하여 '남한의 현체제 유지'라고 응답한 비중은 48.6%로 2024년의 52.2%에서 다소 하락

#### 6. 결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대감 반영 but 아직은 제한적

- 20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전단 살포 중단 요청,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 송출 중단 등 대북 유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함
- 일련의 대북 유화 조치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진보층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고, 이러한 기대감이 통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면 정권 교체 이후 보수층에서는 진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오히려 통일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증가함
-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아직 제한적이며,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반전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함
- 여러 항목에서 2024년에 비해 통일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으나 좀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함

[2025 통일외식조사]

## 통일에 대한 인식

김범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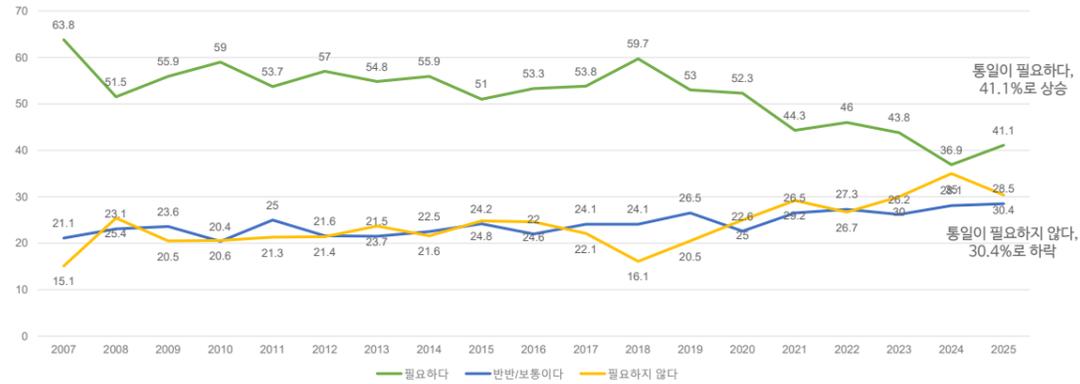
### 2025년 조사의 주요 특징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다소 증가함
  -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41.1%로 2024년(36.9%)에 비해 4.2% 증가한 반면 '전혀'와 '별로'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비중은 30.4%로 2024년(35.0%)에 비해 4.6% 하락함
  - 특히 '진보'층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2024년 39.2%에서 2025년 51.1%로 11.9% 증가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은 2024년 37.3%에서 2025년 23.3%로 14.0% 하락함
  - 그러나 20대(19~29세)의 경우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24.4%에 불과한 반면 '별로'와 '전혀'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은 50.7%로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섬
-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분단체제인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과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
  - 통일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점진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 비중은 47.4%로 2024년에 비해 다소 상승
  - 그러나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 비중이 30.6%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두번째로 높은 수준 유지
  - 통일 가능 시기와 관련하여 '3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과 '불가능하다'는 응답 비중은 각각 28.6%와 35.6%로 둘을 합할 경우 64.2%에 달함

## 통일의식조사

### 통일의 필요성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통일의식조사

###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필요성 세대별 응답 비율(19~29세: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50.7%로 역대 최고)

연령대	매우 + 약간 필요하다					반반/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 전혀 필요하지 않다										
	'19	'20	'21	'22	'23	'24	'25	'19	'20	'21	'22	'23	'24	'25	'19	'20	'21	'22	'23	'24	'25
19~29세	41.1	33.9	28.0	27.8	27.8	22.4	24.4	33.7	29.3	29.2	32.5	29.1	30.2	24.9	25.3	36.7	42.8	39.7	43.1	47.4	50.7
30대	38.3	43.0	41.2	33.9	34.0	23.9	30.4	36.9	25.6	25.5	33.8	30.9	31.1	34.3	24.9	31.4	33.3	32.3	35.1	45.0	35.3
40대	54.1	57.3	45.5	50.3	43.1	36.9	39.0	27.0	22.5	30.3	24.3	25.5	27.6	30.9	18.9	20.2	24.2	25.5	31.3	35.5	30.1
50대	62.0	62.5	46.5	50.4	52.5	43.6	45.2	21.0	18.6	26.7	30.3	22.3	29.8	31.4	17.0	19.0	26.8	19.2	25.3	26.6	23.4
60대 이상	66.8	61.4	57.0	61.2	54.8	49.0	55.9	15.6	18.5	21.6	18.4	24.9	23.8	23.0	17.6	20.1	21.4	20.4	20.3	27.2	21.1

## 통일의식조사

###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필요성 정치성향별 응답 비율(필요하지 않다: 진보 > 보수)

정치적 성향	매우 + 약간 필요하다					반반/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 전혀 필요하지 않다										
	'19	'20	'21	'22	'23	'24	'25	'19	'20	'21	'22	'23	'24	'25	'19	'20	'21	'22	'23	'24	'25
진보적	67.5	65.6	51.8	47.9	42.8	39.2	51.1	21.0	16.7	24.5	26.5	25.8	23.5	25.5	11.6	17.7	23.7	25.6	31.4	37.3	23.3
중도	42.1	47.0	42.2	43.7	44.1	33.6	36.4	32.6	27.5	28.4	29.8	25.7	29.7	31.3	25.3	25.5	29.5	26.5	30.2	36.8	32.4
보수적	57.3	43.4	40.6	48.3	44.0	42.6	35.0	19.3	21.5	25.2	23.5	27.8	29.4	28.1	23.4	35.0	34.3	28.2	28.2	28.0	36.9

## 통일의식조사

### 통일에 대한 견해

통일에 대한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 점진적 통일 but ...



## 통일의식조사

### 통일에 대한 견해 세대별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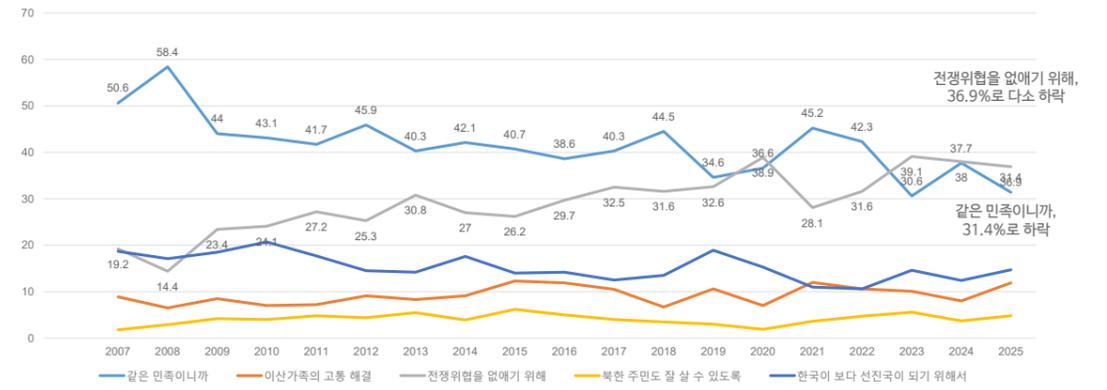
• 통일에 대한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 2~30대: 현재대로+무관심

연령대	아주관심/매우관심					가만히 본다					어느정도 관심/무관심					아주무관심/무관심																			
	19	20	21	22	23	24	25	19	20	21	22	23	24	25	19	20	21	22	23	24	25														
19-29세	19	17	26	29	21	25	11	146	63	78	87	56	47	71	482	487	386	333	345	365	351	274	306	329	324	418	368	347	79	117	178	167	160	165	220
30대	27	17	20	10	27	17	00	128	90	107	80	62	32	40	542	578	489	487	467	422	418	267	255	307	342	299	373	435	36	60	77	71	145	157	107
40대	26	61	20	17	22	18	24	203	120	123	127	114	84	73	562	605	576	489	508	476	531	167	171	222	288	266	321	281	42	43	58	79	90	100	91
50대	58	47	31	53	32	21	22	181	165	159	150	164	114	96	562	562	511	524	485	519	526	146	184	231	199	249	267	253	54	41	67	75	59	79	103
60대 이상	82	46	60	45	30	59	42	171	153	142	209	232	136	140	517	548	559	486	453	446	486	147	182	210	197	223	268	262	83	73	28	63	62	90	59

## 통일의식조사

### 통일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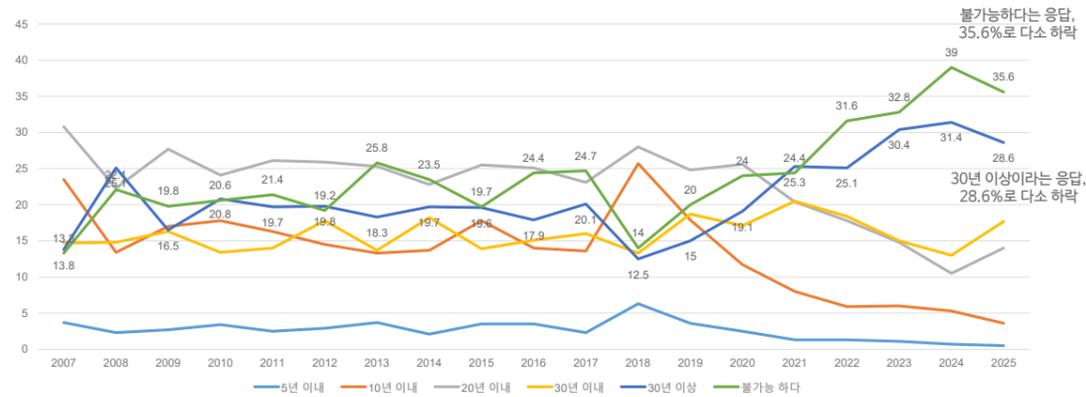
•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쟁위협



## 통일의식조사

### 통일의 시기

• 통일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불가능하다



## 통일의식조사

###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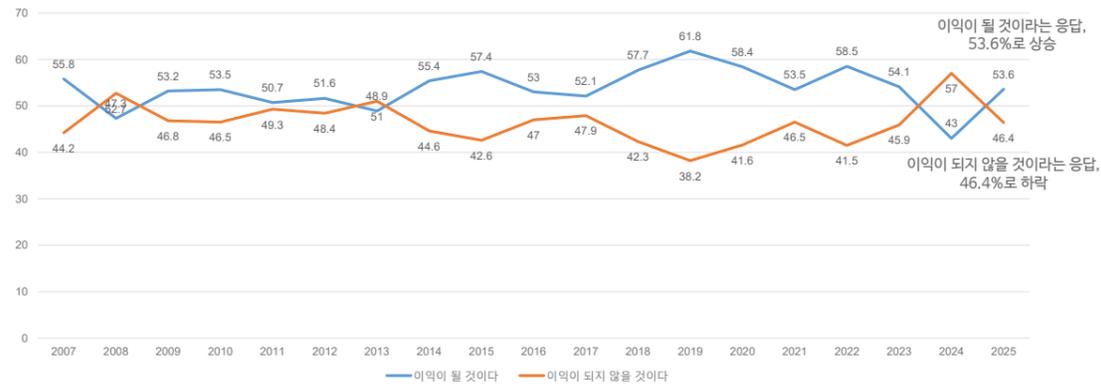
•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경제적 부담

연도	남북 간 정치체제의 차이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	통일로 인한 주변국 정세 불안정
2018	19.2	13.7	35.2	26.8	4.5
2019	17.9	12.7	38.8	25.4	4.6
2020	21.3	13.5	35.0	27.0	2.7
2021	21.1	16.6	33.2	25.9	2.9
2022	21.5	20.1	34.1	20.3	4.0
2023	19.9	13.0	35.4	27.9	3.7
2024	19.2	14.6	33.9	27.9	4.3
2025	18.9	14.3	33.0	29.5	4.2

## 통일의식조사

### 통일의 이익: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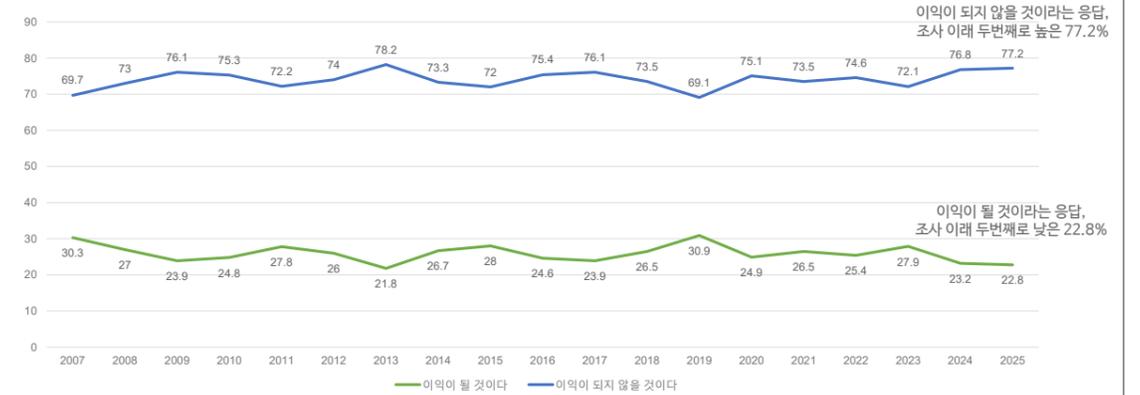
-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익이 되지 않는다



## 통일의식조사

### 통일의 이익: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익이 되지 않는다



## 통일의식조사

### 통일 필요성과 남한에 이익교차 분석

-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고 인식할 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

이익 필요성	매우 이익	다소 이익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합계 (N)*
매우 필요	36.3 (33)	11.8 (64)	5.4 (26)	2.4 (2)	10.4 (125)
약간 필요	35.2 (32)	41.0 (222)	21.1 (102)	12.9 (11)	30.6 (367)
반반/ 보통이다	20.9 (19)	24.8 (134)	35.0 (169)	27.1 (23)	28.8 (345)
별로 필요 하지 않다	3.3 (3)	19.6 (106)	30.9 (149)	34.1 (29)	23.9 (287)
전혀 필요 하지 않다	4.4 (4)	2.8 (15)	7.7 (37)	23.5 (20)	6.3 (76)
합계 (N)	100.0 (91)	100.0 (541)	100.0 (483)	100.0 (85)	100.0 (1,200)

Pearson chi2(12) = 216.9794 Pr = 0.000

## 통일의식조사

### 통일 필요성과 자신에 이익교차 분석

- 통일이 자신에 이익이 된다고 인식할 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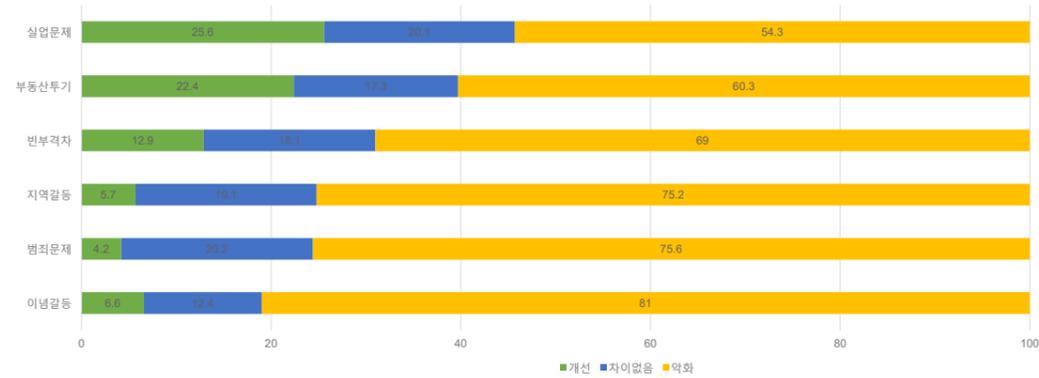
이익 필요성	매우 이익	다소 이익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합계 (N)*
매우 필요	50.0 (11)	19.4 (49)	7.6 (55)	4.9 (10)	10.4 (125)
약간 필요	22.7 (5)	44.7 (113)	28.0 (202)	23.0 (47)	30.6 (367)
반반/ 보통이다	13.6 (3)	23.3 (59)	30.9 (223)	29.4 (60)	28.8 (345)
별로 필요 하지 않다	0.0 (0)	9.5 (24)	28.2 (203)	29.4 (60)	23.9 (287)
전혀 필요 하지 않다	13.6 (3)	3.2 (8)	5.3 (38)	13.2 (27)	6.3 (76)
합계 (N)	100.0 (22)	100.0 (253)	100.0 (721)	100.0 (204)	100.0 (1,200)

Pearson chi2(12) = 149.4301 Pr = 0.000

## 통일의식조사

###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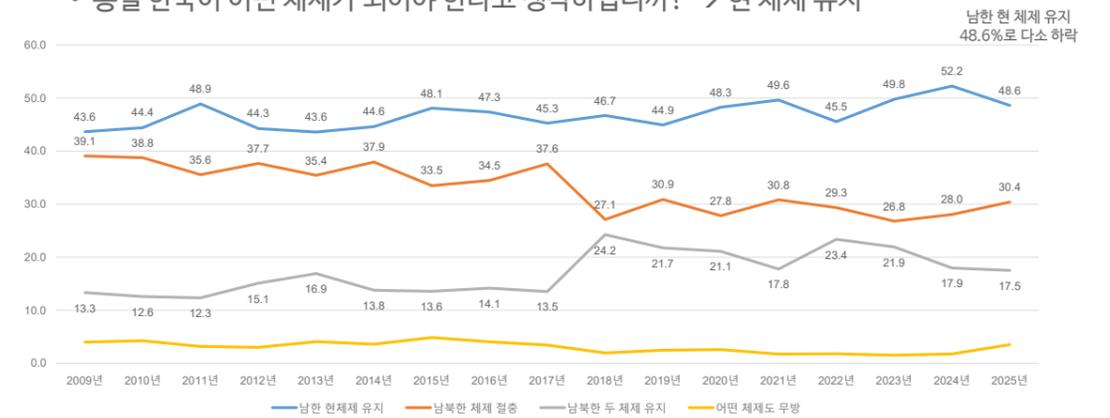
• 통일이 한국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 개선에 기여하는지 악화시키는지? → 악화시킨다



## 통일의식조사

###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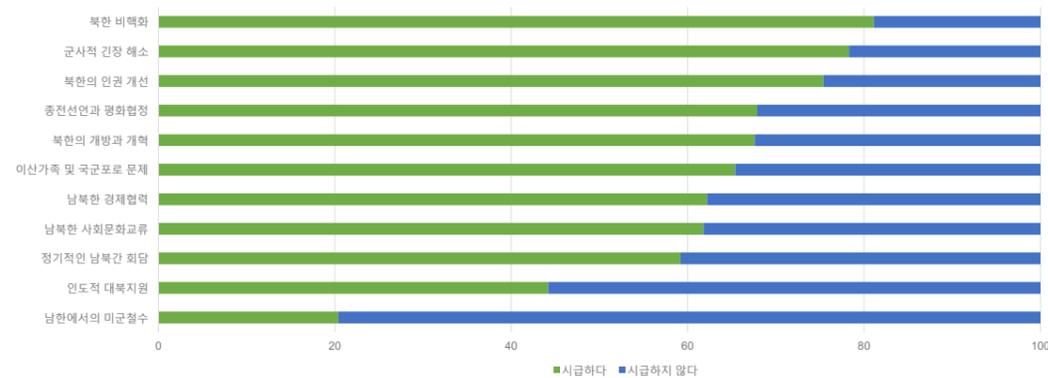
• 통일 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 체제 유지



## 통일의식조사

### 시급성에 대한 인식

•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북한 비핵화



## 통일의식조사

### 통일의 이미지

• 통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통일의 이미지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것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가치, 문화, 교육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	기타
2018	58.1	14.8	19.3	7.5	0.2
2019	60.6	15.0	20.0	4.1	0.3
2020	62.6	13.4	17.7	5.9	0.3
2021	63.6	11.8	18.5	6.1	0.0
2022	58.1	13.2	20.0	8.8	0.0
2023	59.8	12.3	22.5	5.4	0.0
2024	62.3	11.6	19.8	6.2	0.1
2025	60.3	18.0	16.8	4.8	0.1

## 주요 특징 및 경향

-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다소 상승함
  -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41.1%로 2024년에 비해 4.2% 상승한 반면 '전혀'와 '별로'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은 30.4%로 2024년 조사에 비해 4.6% 하락함
  - 특히 '진보'층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024년 39.2%에서 2025년 51.1%로 상승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24년 37.3%에서 2025년 23.3%로 하락
  - 그러나 20대(19~29세)의 경우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24.4%에 불과한 반면 '별로'와 '전혀'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은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인 50.7%에 달함
  - 20대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

## 주요 특징 및 경향

- 왜? 경제적 부담 + 기대이익 하락 + 사회문제 악화 우려**
  -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33.0%가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꼽고 있으며, 29.5%가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를 꼽고 있음
  - 올해 조사에서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매우'와 '다소'를 합해 53.6%로 2024년 43.0%에 비해 상승
  - 그러나 '남한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 또한 46.4%로 여전히 높은 수준
  - 또한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2.8%인 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77.2%에 달하고 있음
  - 또한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와 관련하여 통일이 이념갈등, 범죄문제, 지역갈등, 빈부격차, 부동산투기 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0%를 넘어서고 있음

## 주요 특징 및 경향

- 남북이 분단된 '현재대로가 좋다'**
  - 통일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점진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의 비중은 47.4%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 비중 또한 30.6%에 달하고 있음
  - 특히 20대와 30대에서 '현재대로가 좋다'라는 응답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응답을 합할 경우 각각 56.7%와 54.2%를 차지
- 통일은 '불가능하다'**
  - 통일 가능 시기와 관련하여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35.6%에 달하고 있으며, '30년 이상'이라는 응답도 28.6%에 달해 둘을 합칠 경우 64.2%에 달함
  - 반면 '30년 이내'는 모두 포함하여 35.8%에 불과함

## 결론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대감 반영 but 아직은 제한적**
  - 20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전단 살포 중단 요청,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과 TV방송 송출 중단 등 유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함
  - 일련의 대북 유화 조치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진보층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고, 이러한 기대감이 통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면 정권 교체 이후 보수층에서는 진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오히려 통일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증가함
  -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아직 제한적이며,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반전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함
  - 여러 항목에서 2024년에 비해 통일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으나 좀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함



## 발표2. 북한인식

김병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

# 북한에 대한 인식 (요약문)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 1. 대북인식 조사 결과

- 2025년 한국인의 대북인식은 협력의식이 5.9%p 줄어든 반면, 지원해야 한다는 의식이 7.0%p 증가했으며, 강한 적대의식은 경계의식으로 완화됨.
  - 협력의식 39.9%→34.0%, 지원의식 10.8%→17.8%
  - 적대의식 22.3%→18.9%, 경계의식 18.6%→22.9%
- 북한발 안보불안은 56.5%로 최근 3년에 비해 8~9%p 낮아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던 2018년(56.3%)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북한정권 신뢰도도 33.5%로 7.0%p 상승, 대북인식 변화에 정권교체 효과 작용
  - 북핵위협은 85.9%→84.7%로 높은 수준 유지
  -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 60.9%(22)→64.8%(23)→65.6%(24)→56.5%(25)
  - 북한정권 신뢰도 26.5%→33.5%
-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89.7%)과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비판적 시각(82.5%)이 높게 형성된 가운데, 북한정권이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83.1%로 조사 이래 최조고
  - 북한 핵포기하지 않을 가능성 89.7% (2022년 92.5%)
  - 북한인권 심각 82.5%(매우 심각 39.0%), 북한 국가성 동의 55.4%
  - 북한 정권이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 78.5%(22)→78.1%(23)→81.9%(24)→83.1%(25)로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

## 2. 변수별 분석

- 북한발 안보불안 의식이 낮아지고 대북 부정인식이 완화되면서 작년에 수렴되었던 지역·이념 등 변수별 인식의 분화는 재개
  - 지역과 정치성향에 따른 대북의식의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났으며, 세대(연령)변수는 부분적으로 작동
- 남북한관계(북한대상인식)에서 지난 1년 사이에 대북 부정(경계+적) 인식이 20~40대에서는 완화된 반면, 50~60대이상에서는 강화되어 세대별 편차 줄어들음
  - 20대 51.3%→44.7%로, 30대 48.6%→43.1%, 40대 37.2%→34.9%로 완화
  - 50대 35.4%→41.4%, 60대이상 36.6%→44.8%로 강화

- 지역적으로 충청권의 변화가 두드러진 바, 충청권은 대북 협력인식이 41.5%로 호남권(38.7%)보다 높으며, 적대대상 인식도 9.1%로 영남권(27.2%)보다 낮은 것은 물론 수도권(17.5%) 및 호남권(17.5%)보다도 현저히 낮아 매우 이례적인 변화
  - 대북인식에서 정권교체 효과가 작동하였는데, 충청권이 정권교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대북인식과 정치적 성향과의 높은 상관관계는 올해 다시 가시화됨.
  - 협력대상, 진보 39.3%, 중도 35.6%, 보수 24.0%
  - 정권대화가능, 진보 39.8%, 중도 32.5%, 보수 26.9%
  -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 진보 54.2%, 중도 52.4%, 보수 66.6%

### 3. 결론

- 2025년 한국인의 대북인식은 안보불안이 큰 폭(9.1%p)으로 해소된 가운데, 대북 적대의식과 북한정권 불신 등 부정적·비판적 의식이 완화됨
  - 이는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평화공존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크게 해소된 결과로 보이며, 대북인식 변화에 정권교체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
- 북한정권에 대한 통일회의론이 역대 최고(83.1%)로 상승한 것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전개한 통일철폐 및 대남 적대정책 보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안보불안의 해소와 북한에 대한 불신이 완화되면서 세대, 지역, 이념 간 의식의 차이는 다시 분화했으며, 특히 충청권 변화의 진폭이 컸고, 진보-보수 간의 의식 격차가 확대됨
- 북한의 통일폐기 정책과 이재명 정부의 남북대화 및 평화공존 정책이 어떤 역동적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인가에 따라 향후 북한 인식 및 전반적인 통일의식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관계개선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세대, 지역, 이념 변수의 분화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북한인식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목 차

- I. 조사결과
- II. 변수별 분석
- III. 결론

I. 대북인식 조사결과

- 대북 협력의식이 5.9%p 줄어든 반면, 지원의식이 7.0%p 증가했으며, 강한 적대의식은 경계의식으로 완화
  - 협력의식 39.9%→34.0%, 지원의식 10.8%→17.8%
  - 적대의식 22.3%→18.9%, 경계의식 18.6%→22.9%
- 북한발 안보불안은 56.5%로 최근 3년에 비해 8~9%p 낮아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2018년(56.3%)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북한정권 신뢰도도 33.5%로 7.0%p 상승, 대북인식 변화에 정권교체 효과 작용
  - 북핵위협은 85.9%→84.7%로 높은 수준 유지
  -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 60.9%(22)→64.8%(23)→65.6%(24)→56.5%(25)
  - 북한정권 신뢰도 26.5%→33.5%

II. 변수별 분석

변수별 상관관계

변수	남북한관계	북한정권신뢰도	무력도발	핵무기위협	국가성	인권상황
성별	0.803	0.061	0.610	0.490	0.038	0.829
연령	0.460	0.146	0.312	0.646	0.112	0.310
교육	0.204	0.168	0.410	0.149	0.544	0.468
지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정치성향	0.000	0.000	0.000	0.127	0.000	0.001
종교	0.012	0.000	0.010	0.339	0.155	0.000

-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89.7%)과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비판적 시각(82.5%)이 높게 형성된 가운데, 북한정권이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83.1%로 조사 이래 최고고, 통일을 폐기한다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북한 핵포기하지 않을 가능성 89.7% (2022년 92.5%)
  - 북한인권 심각 82.5%(매우 심각 39.0%), 북한 국가성 동의 55.4%
  - 북한 정권이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 78.5%(22)→78.1%(23)→81.9%(24)→83.1%(25)로 역대 최고조

II. 변수별 분석

- 북한발 안보불안 의식이 낮아지고 대북 부정인식이 완화되면서 작년에 수렴되었던 지역·이념 등 변수별 의식분화는 재개
  - 지역과 정치성향에 따른 대북의식의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났으며, 세대(연령)변수는 부분적으로 작동
- 남북한관계(북한대상인식)에서 지난 1년 사이에 대북 부정(경계+적) 인식이 20~40대에서는 완화된 반면, 50~60대이상에서는 강화되어 세대별 편차 줄어듦
  - 20대 51.3%→44.7%로, 30대 48.6%→43.1%, 40대 37.2%→34.9%로 완화
  - 50대 35.4%→41.4%, 60대이상 36.6%→44.8%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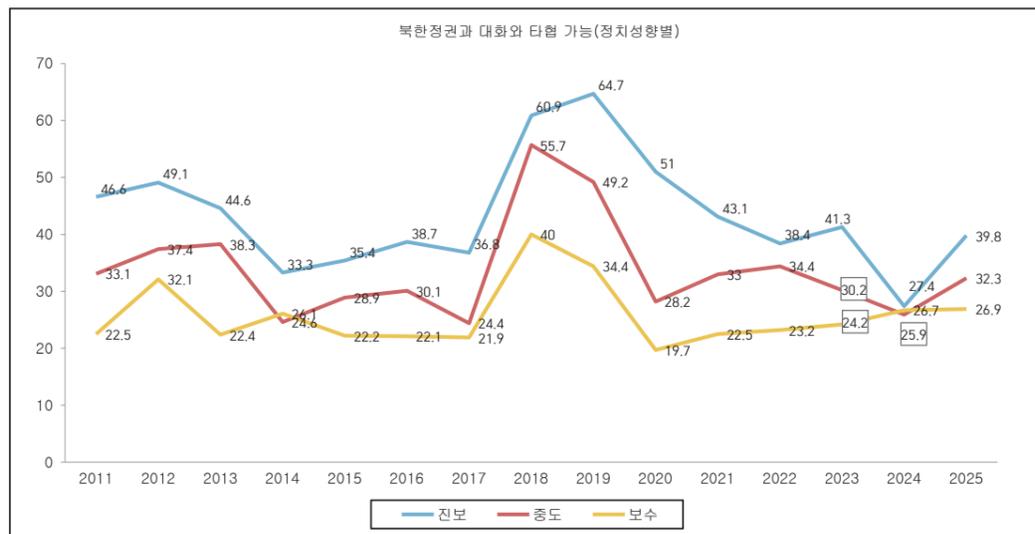
## II. 변수별 분석

- 지역적으로 충청권의 변화가 두드러진 바, 충청권은 대북 협력인식이 41.5%로 호남권(38.7%)보다 높으며, 적대대상 인식도 9.1%로 영남권(27.2%)보다 낮은 것은 물론 수도권(17.5%) 및 호남권(17.5%)보다도 현저히 낮아 매우 이례적인 변화
  - 대북인식에서 정권교체 효과가 작동하였는데, 충청권이 정권교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대북인식과 정치적 성향과의 높은 상관관계는 올해 다시 가시화
  - 협력대상, 진보 39.3%, 중도 35.6%, 보수 24.0%
  - 정권대화가능, 진보 39.8%, 중도 32.5%, 보수 26.9%
  -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 진보 54.2%, 중도 52.4%, 보수 66.6%

## III. 결론

- 2025년 한국인의 안보불안이 큰 폭(9.1%p)으로 해소된 가운데, 대북 적대 의식과 북한정권불신 등 부정적·비판적 의식이 완화됨
  - 이는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평화공존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크게 해소된 결과로 보이며, 대북인식 변화에 정권교체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
- 북한정권에 대한 통일회의론이 역대 최고(83.1%)로 상승한 것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전개한 통일철폐 및 대남 적대정책 보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II. 변수별 분석



## III. 결론

- 안보불안의 해소와 북한에 대한 불신이 완화되면서 세대, 지역, 이념 간 의식의 차이는 다시 분화했으며, 특히 충청권 변화의 진폭이 컸고 진보-보수 간의 의식격차가 확대됨
- 북한의 통일폐기 정책과 이재명 정부의 남북대화 및 평화공존 정책이 어떤 역동적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인가에 따라 향후 북한인식 및 전반적인 통일의식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관계개선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세대, 지역, 이념 변수의 분화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

감사합니다.

## 발표3. 대북정책인식

장용석(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

# 정부 대북정책 인식 (요약문)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1. 정부 대북정책 목표 인식

- 남북간 평화공존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61.3%를 차지, 2024년보다 1.1%p 하락하였으나, 조사 시작 이후 60% 이상의 다수 공감대를 지속 유지
-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에 대한 연령대별 응답을 보면 Δ20-30대 Δ40-50대 Δ60세 이상 간 인식 차이가 지속
  - 남북통일에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통일에 대한 지지가 하락하는 가운데 최저인 20대와 최고인 60세 이상 간 격차가 15.8%p로, 2024년 10.5%p보다 확대
  - 북한 변화와 남북경제통합(북한 개혁개방과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에서도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지지가 하락하는 가운데 최저인 30대와 최고인 60세 이상 간 격차가 16.6%p로, 2024년 20대와 60세 이상 간 격차 7.9%p보다 확대
  - 다만 한반도 안정(남북 평화공존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서는 최저인 20대와 최고인 60세 이상 격차가 7.5%p로, 2024년 8.5%p보다 1%p 축소
- 2025년 6월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별 지지층의 대북정책 목표 인식을 보면 이재명-김문수 후보 지지층 간 유사한 인식 표출
  - Δ남북통일과 Δ한반도 안정(남북 평화공존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서 이재명-김문수 지지층이 이준석 후보 지지층보다 10%p 이상 높은 지지를 보인 반면
  - Δ북한 변화와 남북경제통합(북한 개혁개방과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에서는 이준석 후보 지지층이 11.9%p 정도 높은 지지 표출
  - 한편 투표를 하지 않은 집단의 한반도 안정(남북 평화공존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지지율이 69%로 가장 높음

## 2. 정부 대북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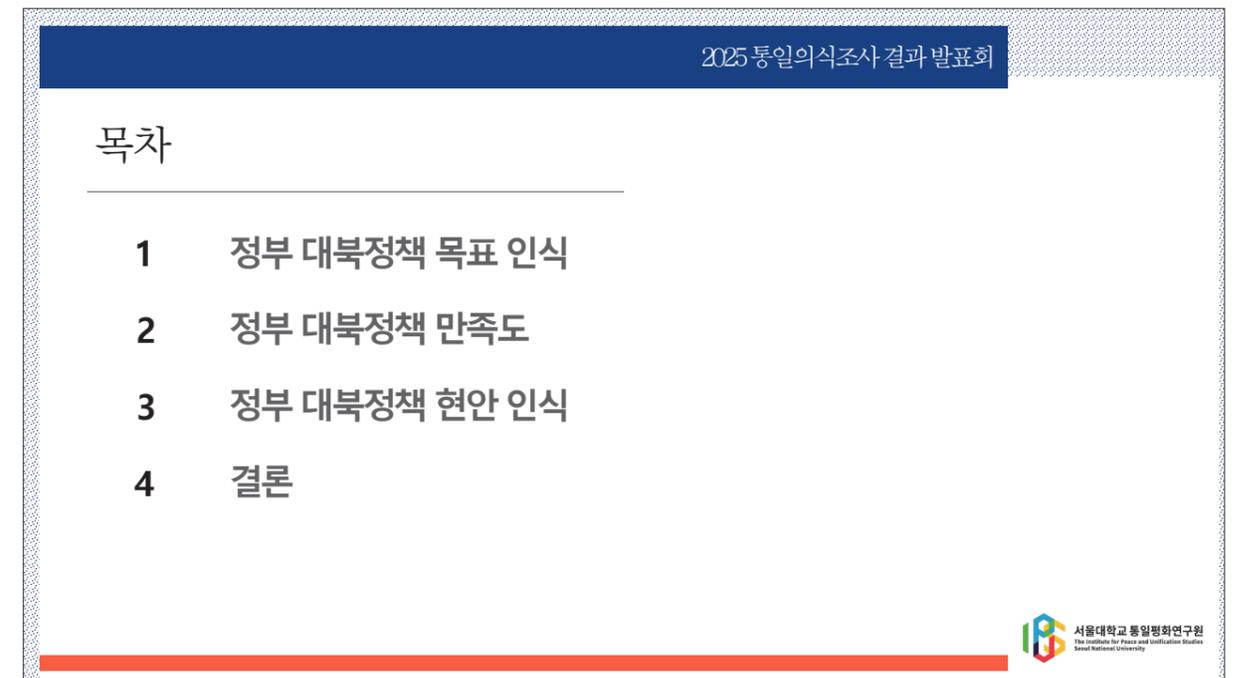
-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52.0%로, 2024년보다 8.9%p 상승하여 출범 후 3개월 정도 지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
- 연령대별 만족 정도를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50% 전후로 수렴되는 양상
- 2025년 6월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별 지지층의 만족 정도를 보면 대선 후보 지지층 간 차이가 6 대 4 정도로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이준석 후보 지지층의 만족 정도가 54.2%로 절반 이상을 차지

### 3. 정부 대북정책 현안 인식

- Δ개성공단 재가동이나 Δ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찬성이 각각 4.2%P와 4.0%P 상승하였으나 반대로 각각 5.7%P와 4.6%P 상승 Δ대북빼라살포금지에 대한 찬성이 6.9%P 상승(반대는 2.2%P 상승)
-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층의 대북정책 현안별 찬성 인식을 보면 2024년 대비 Δ개성공단 재가동 21.8%P Δ금강산관광 재개 21.1%P 상승하고 Δ대북빼라살포금지도 16.1%P 상승한 반면, Δ북핵 해결 전 교류협력 금지는 7.3%P 하락
- 북한 개혁개방에 대해 Δ남북사회문화교류 Δ경제협력 Δ대북인도지원이 기여한다는 응답이 각각 64.2%, 61.3%, 53.4%를 차지하여 교류협력의 북한 변화 기여도를 높게 인식  
- 반면, Δ대북제재는 2024년 대비 5.8%P 하락한 34.8%로 2022년 이후 하락 추세 지속
- 북한 비핵화에 대한 대북정책 분야별 기여 인식을 보면 2024년과 유사한 추세를 보인 가운데 Δ남북군사회담이 59.3%로 가장 높고(2024년 대비 +2.1%P) 그 다음으로 Δ경제협력이 56.4%(+5.5%) Δ대북인도지원이 49.0%를 차지  
- 반면 대북제재는 35.4%(2024년 대비 -4.4%P), 군사적 억제 강화는 35.8%(-7.5%)를 차지하여 2023년 이후 하락 추세 지속

### 4. 결론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기에 이번 조사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보다 기대와 희망을 반영
- 이와 관련 2025년 대선 후보 지지층별 Δ대북정책 목표 상 수렴 양상과 Δ만족도 상, 정치화된, 극명한 차이 그리고 여론 측면에서 Δ정부 대북정책 만족 응답층의 기대와 현실 간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



### 1-1 정부 대북정책 목표 인식

2025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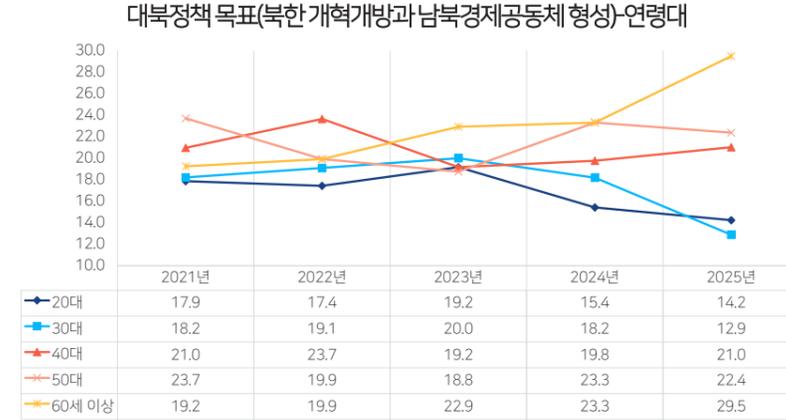


- 남북 평화공존과 한반도 평화정착 (안정) 우선 60% 이상 지속
- 남북통일 지지는 지속 하락 추세
- 북한 변화/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지지 회복 추세



### 1-3 정부 대북정책 목표 인식

2025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지지 상승
- 20-30, 40-50대, 60세 이상 분화
- 30대-60세 이상: 16.6%p 격차



### 1-2 정부 대북정책 목표 인식 III.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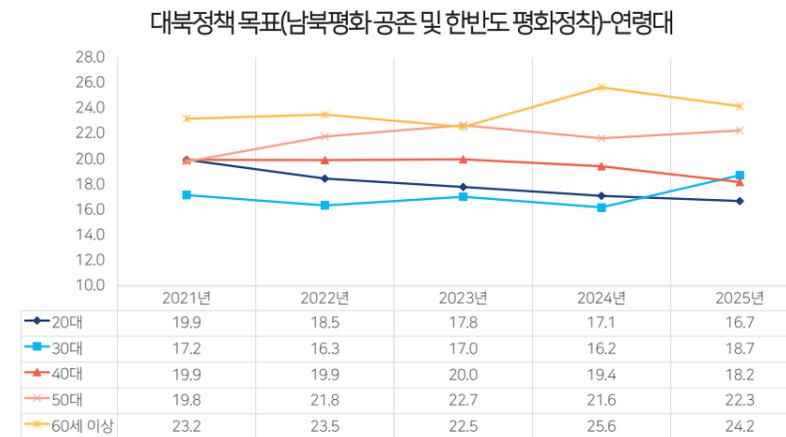
2025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 2025년 한국인의 안보불안이 큰 폭(9.1%p)으로 해소된 가운데, 대북 적대인식과 북한정권불신 등 부정적·비판적 인식이 완화됨
  - 이는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평화공존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크게 해소된 결과로 보이며, 대북인식 변화에 정권교체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
- 북한정권에 대한 통일회의론이 역대 최고(83.1%)로 상승한 것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전개한 통일철폐 및 대남 적대정책 보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1-4 정부 대북정책 목표 인식

2025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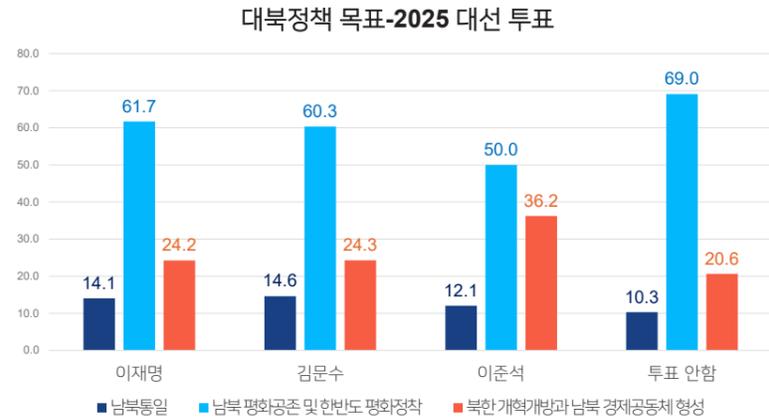


- 60세 이상 > 50대 >
- 30대 = 40대 > 20대 순
- 20대-60세 이상: 7.5%p 격차



## 1-5 정부 대북정책 목표 인식

2025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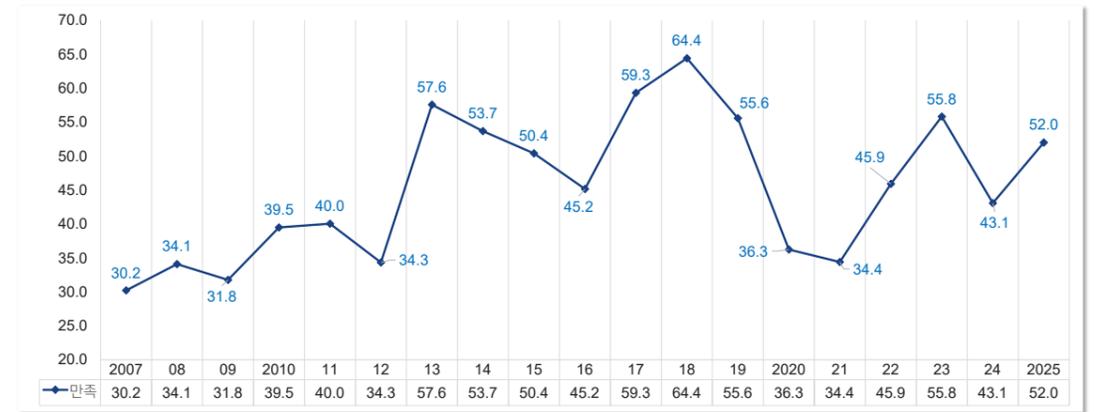


- 이재명-김문수 후보 지지층 간 인식 유사
- 남북 통일/평화 공존: 이재명-김문수 후보 지지층이 이준석 후보 10%p 이상 높음
- 북한 변화와 남북경제공동체: 이준석 후보 지지층이 12%p 정도 높음



## 2-1 정부 대북정책 만족도

2025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 2024년 대비 8.9%p 상승



## 1-6 정부 대북정책 목표 인식

2025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대북정책 목표별 북한도 하나의 국가 인식(찬성)



- 2024년 대비 남북통일 지지층의 북한 국가성 인정 12.0%p 상승



## 2-2 정부 대북정책 만족도

2025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정부 대북정책 만족 응답-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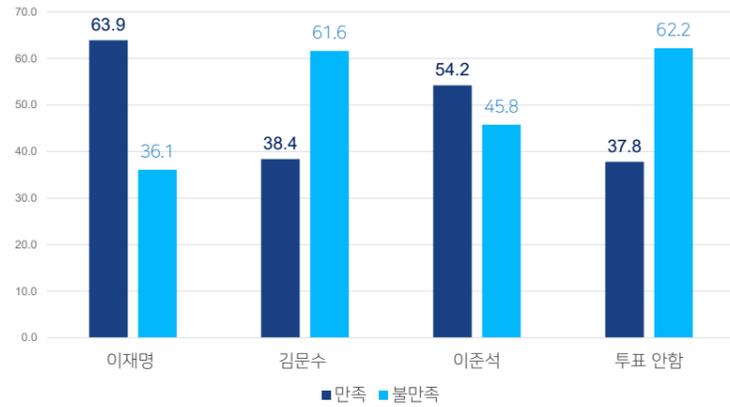
- 모든 연령대의 만족 응답이 2024년 대비 50% 전후로 수렴



## 2-3 정부 대북정책 만족도

2025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대북정책 만족도-2025 대선 투표



- 대선 지지 후보별 차이 극명(약 6:4)
- 다만 이준석 후보 지지층 절반 이상이 만족



## 2-5 정부 대북정책 만족도

2024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정부 대북정책 <만족층>의 정책목표 인식



- 남북 평화공존 및 한반도 평화정착 지지 9%p 하락
- 북한 개혁개방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지지 7.2%p 상승



## 2-4 정부 대북정책 만족도

2025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대북정책 만족도-북한도 하나의 국가 인식



- 북한도 하나의 국가 주장 찬성 층에서 2024년 대비 10.7%p 상승



## 3-1 정부 대북정책 현안 인식

2025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개성공단 재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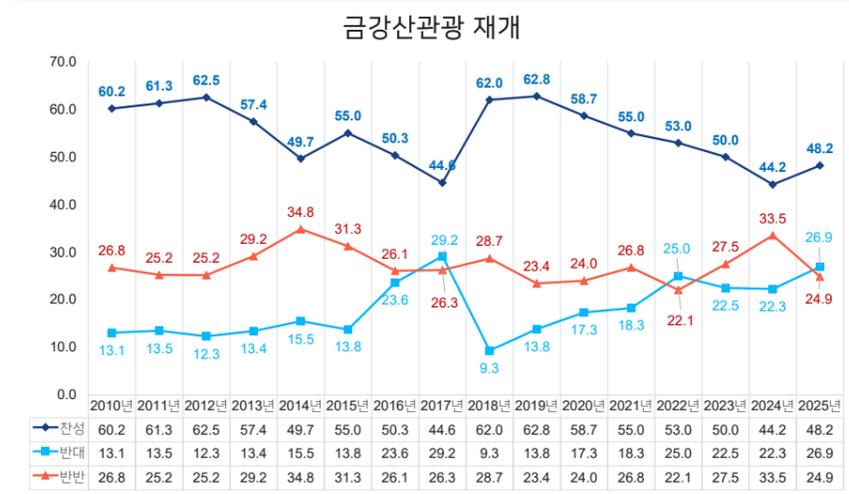


- 찬성 4.2%p 상승
- 반대 5.7%p 상승
- 반반 10.0%p 하락



### 3-2 정부 대북정책 현안 인식

2025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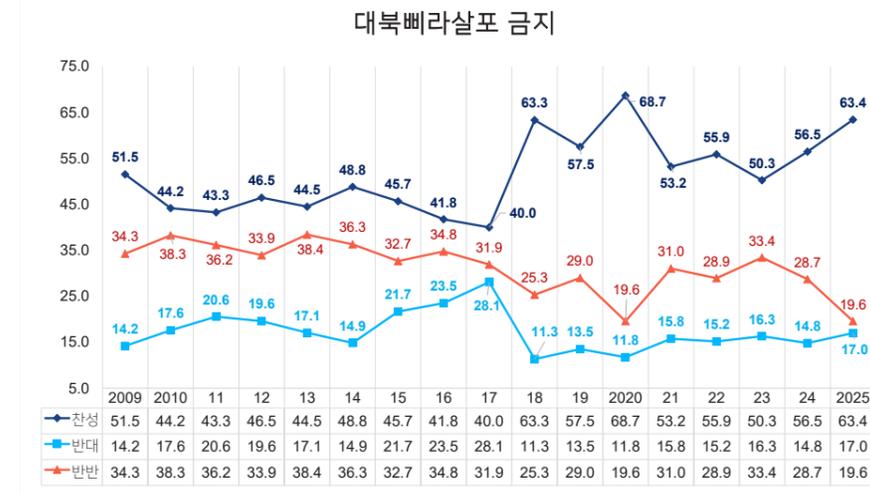


- 찬성 4.0%p 상승
- 반대 4.6%p 상승
- 반반 8.6%p 하락



### 3-4 정부 대북정책 현안 인식

2025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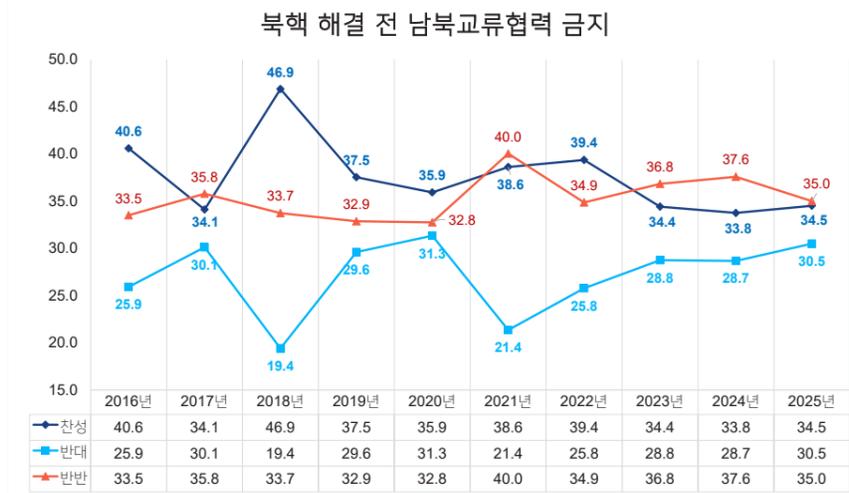


- 찬성 6.9%p 상승
- 반대 2.2%p 상승
- 반반 9.1%p 하락



### 3-3 정부 대북정책 현안 인식

2025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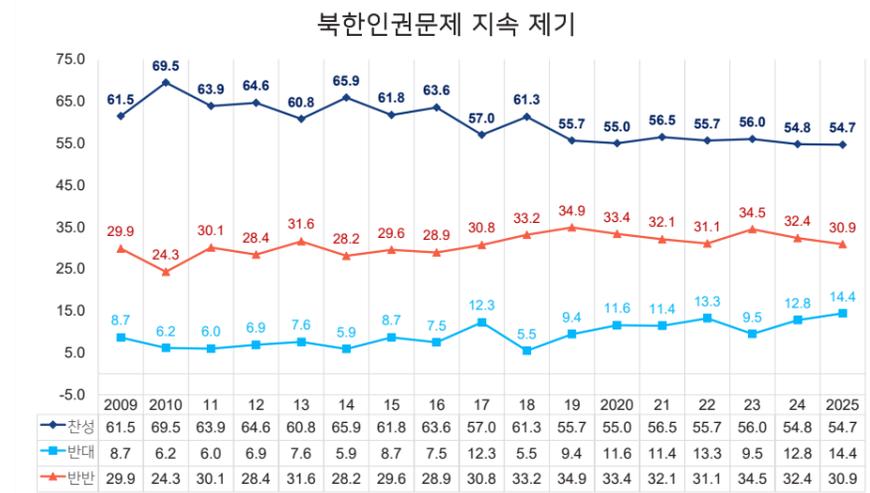


- 찬성 0.7%p 상승
- 반대 1.8%p 상승
- 반반 2.6%p 하락



### 3-5 정부 대북정책 현안 인식

2025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 찬성 0.1%p 하락
- 반대 1.6%p 상승
- 반반 1.5%p 하락



### 3-6 정부 대북정책 현안 인식

2025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정권 교체 무관하게 남북합의 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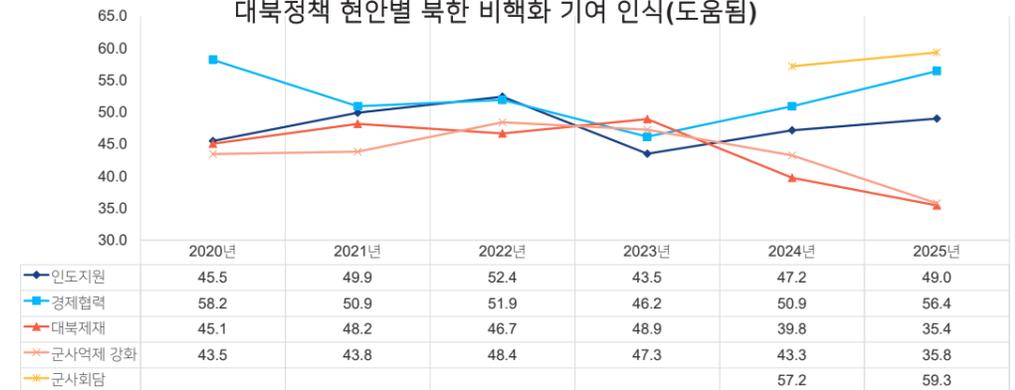
- 동의: 0.2%p 하락, 부동의: 2.9%p 상승, 전 정부 정책 비판적 평가



### 3-8 정부 대북정책 현안 인식

2025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대북정책 현안별 북한 비핵화 기여 인식(도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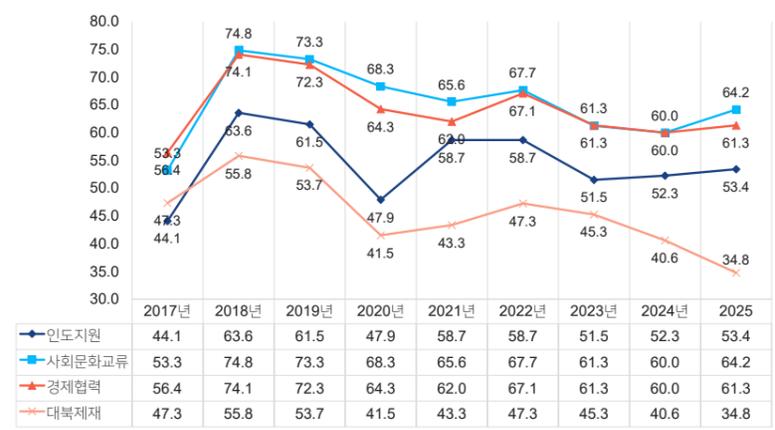
- 군사회담 2.1%p 상승, 경제협력 5.5%p 상승, 인도지원 1.8%p 상승
- 대북제재 4.4%p 하락, 군사억제 7.5%p 하락



### 3-7 정부 대북정책 현안 인식

2025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대북정책 분야별 북한개혁개방 기여 인식 비율



- 남북사회문화교류 긍정평가 4.2%p 상승
- 반면 대북제재 긍정평가 5.8%p 하락



### 3-9 정부 대북정책 현안 인식

2025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대북정책 만족증 현안 인식(찬성)



- 대북배라살포금지(16.1%p), 금강산관광 재개(21.1%p), 개성공단 재가동(21.8%p) 상승
- 북핵 해결전 교류협력 금지 7.3%p 하락



## 4 결론

- 현재는 국제 및 한반도 질서 전환기이자 신정부 출범 초기
- 이번 조사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보다 ‘기대와 희망’을 반영
- 이와 관련 2025년 대선 후보 지지층별

△대북정책 목표 상 수렴 양상과 △만족도 상, 정치화된, 극명한 차이 그리고 여론 측면에서 △정부 대북정책 만족 응답층의 기대와 현실 간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



# 발표4. 북한이탈주민인식

김영호(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Thank you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요약문)

김영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과 인식의 변화

현재까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약 34,410명이며, 입국 규모는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에는 229명으로 급감하였다. 이후 2021년 63명, 2022년 67명, 2023년 196명, 2024년 236명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 속에서 남한 주민들의 정서적 친근감과 사회적 거리감은 2024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25년에는 새로운 변곡점이 확인되었다. 친근감 인식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친근하게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29.1%로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하며 장기간 하락세를 반전시켰다. 이는 2019년에 기록된 수준에 근접하는 수치로, 최근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를 반영한다.

##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인식

2025년 통일외식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을 친근하게 느낀다는 응답은 29.1%로 집계되었다. 이는 장기간 이어졌던 친근감 지표의 하락세가 반등했다는 점에서, 올해의 변화는 단순한 수치상 상승을 넘어 사회적 인식의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대별·정치성향별·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20·30대에서 친근감 지표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연령대별 인식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났다. 그리고 보수적 성향 집단에는 다소 감소한 반면 진보적 성향 집단과 중도에서 친근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식이 강하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다른 집단 이주민과 비교했을 때 주요 외국인 집단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차이는 북한이탈주민과의 직접적인 접촉 경험, 미디어 노출, 지역사회 내 교류 기회의 유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 인식

북한이탈주민을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친근감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원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포괄적 수용 의견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이 꾸준히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가 북한이탈주민을 완전히 포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제한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지원정책 확대에 대한 2025년 조사에서도 "추가지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일정 부분 하락하며, "추가지원에 동의한다"가 소폭 상승하였다. 단순한 인권 차원의 포용보다는 사회적 비용과 제도적 효과성에 대한 고려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친근감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용성과 정책적 뒷받침에 있어서는 신중함과 거리감이 병존하는 상황이다.

####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효용성 인식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 간 이질성 해소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긍정적 응답이 2024년부터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조사에서는 59.9% 응답자가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히 사회적 약자 집단으로 인식되는 것을 넘어, 남북 간 교류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흐름은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인식이 단순한 동정적 시선에서 벗어나, 사회 통합 및 통일 담론의 중요한 자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효용성 인식이 증가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수용성이나 정책적 지지가 동반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신뢰 구축과 제도적 설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긍정적 인식이 실제 통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동시에 확인 된다.

#### 5. 소결

2025년 북한이탈주민 인식에 대한 조사는 장기간 하락세였던 친근감 지표가 29.1%로 반등한 중요한 변곡점을 보여주었다. 특히 올해 7월 14일 전국 17개 지역에서 열린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와,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다수의 성공적 정착 사례가 미디어에 확산된 점이 친근감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남중 통일부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통합을 함께 이뤄내기 위해 기본적인 정착 지원과 보호를 넘어 지역사회 일원으로 함께 어울리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메시지는 사회 전반에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다.

세대별로는 20·30대 청년층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져, 세대 간 인식 격차가 줄어드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용성 인식은 여전히 조건부 태도가 우세했으나, 추가지원에 긍정하는 응답이 소폭 상승하며 점진적 개선 조짐을 보였다. 또한 효용성 인식은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이질성 해소에 기여한다는 긍정 응답이 과반을 넘으며, 이들이 통일 담론 속에서 사회적 자원으로 재인식되는 흐름을 드러냈다. 결론적으로, 친근감의 회복은 전국적 행사와 미디어 확산, 사회적 관심이 결합된 결과이며, 이는 효용성 인식 상승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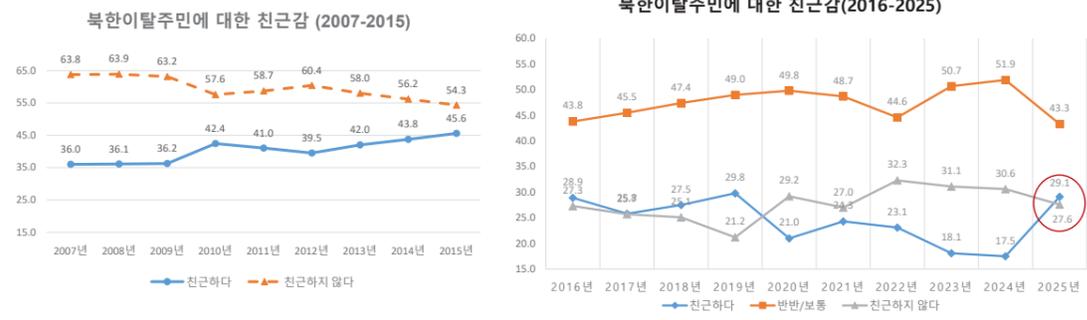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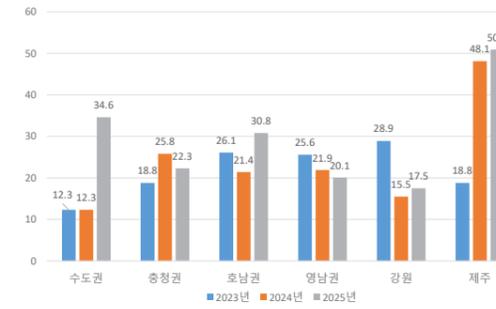
- 목차 -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인식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 인식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효용성 인식
-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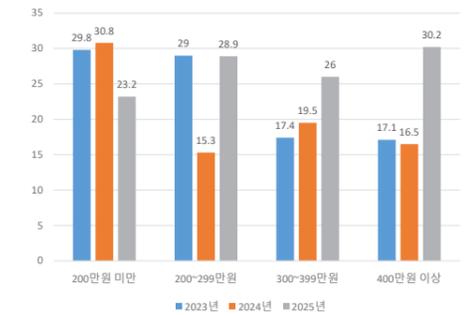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인식(2007-2025)



지역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소득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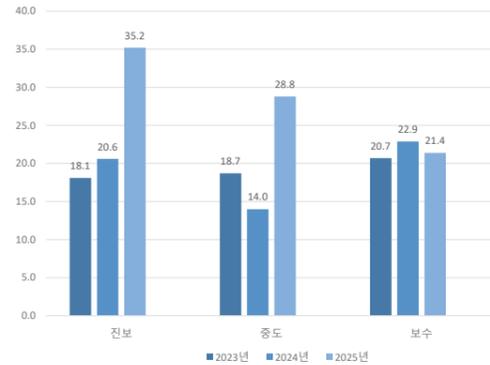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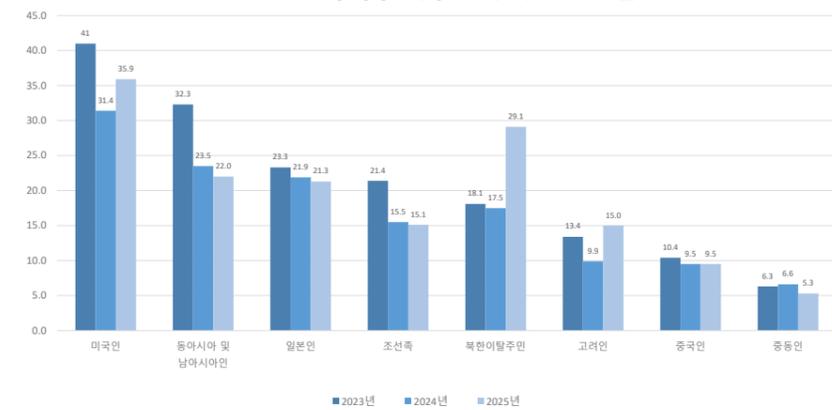
세대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정치 성향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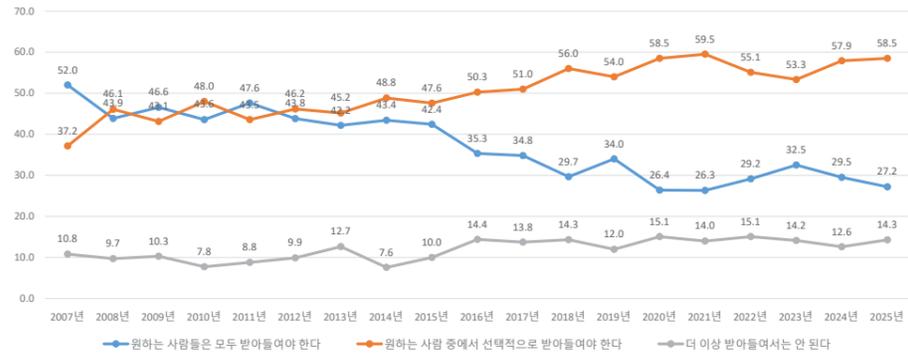


한국거주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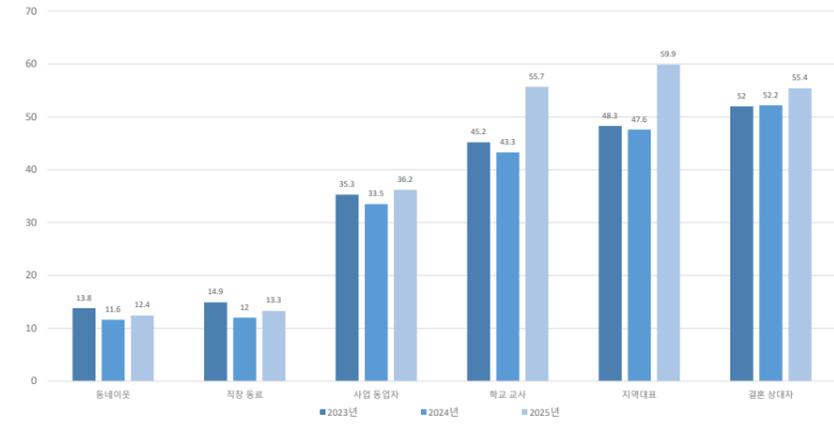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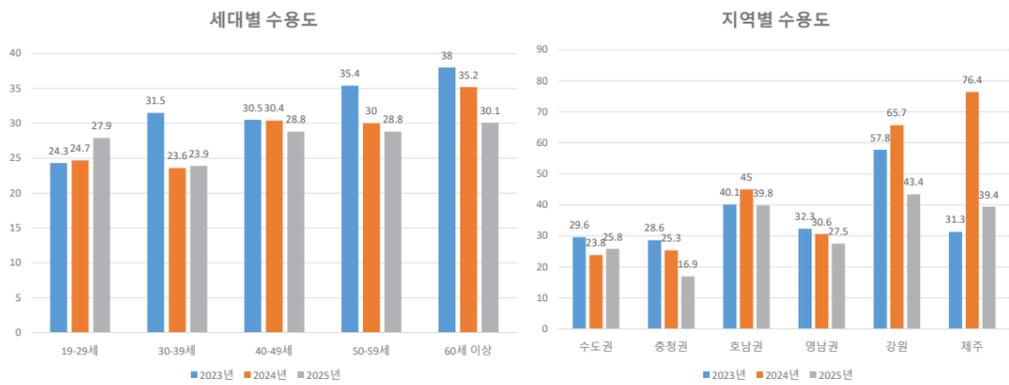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수용도(2007-2025년)



###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에 따른 거리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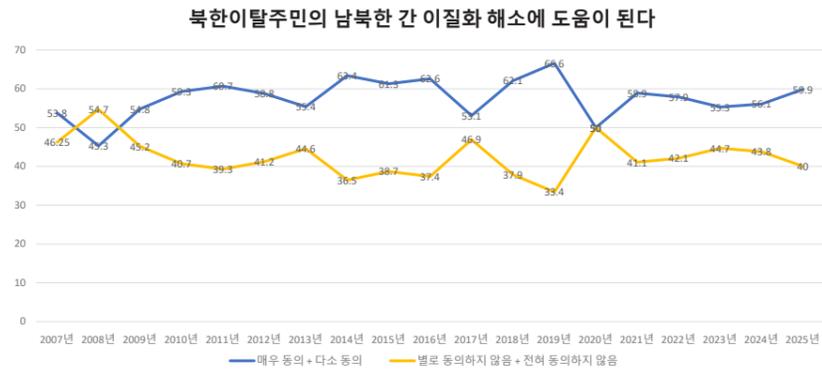
### 원하는 사람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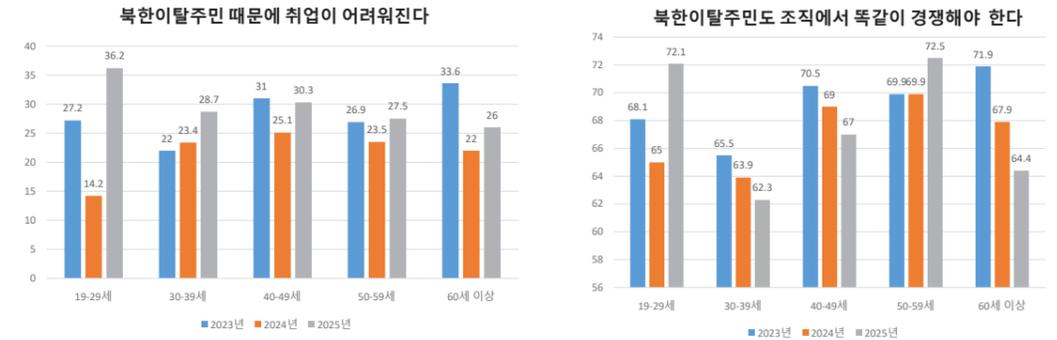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 추가지원 여부(2007-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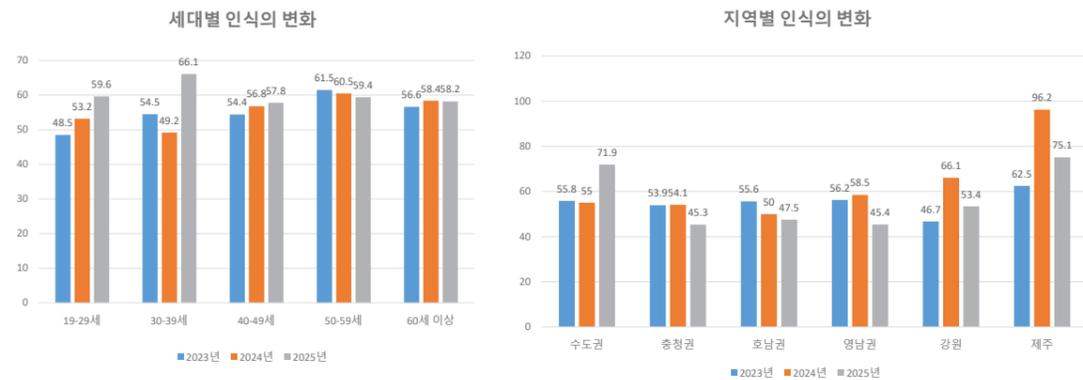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효용성 인식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쟁의식 세대별 인식



##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 간 이질 해소에 도움이 된다



## 종합평가

### 1. 친근감

2025년 조사에서 친근감은 29.1%로 반등했으며, 특히 청년층과 진보·중도 성향, 수도권에서 긍정적 인식이 높았음

### 2. 수용성

'모두 수용' 의견은 줄고 '선택적 수용'이 우세했으며, 추가 지원에 긍정하는 응답이 소폭 증가했지만 비용 고려가 병존함

### 3. 효용성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 이질성 해소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으며, 사회적 자원으로 재인식되는 흐름이 강화됨

## 소 결

2025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29.1%로 반등했지만, 이는 제2회 기념행사와 정부 차원의 홍보, 그리고 미디어에서 확산된 정착 미담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임.  
특히 수도권 청년층에서의 급격한 상승은 행사와 홍보 효과의 영향이 컸 던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이번 변화는 분명 긍정적 신호지만, 일시적 분위기를 넘어 지속적인 수용성과 통합으로 이어지려면 사회적 제도와 일상적 교류의 뒷받침이 필요함

## 발표5. 주변국인식

이유철(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주변국 관계 인식 (요약문)

이유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1. 주변국에 대한 이미지: 친밀국과 위협국

#### 친밀하게 느끼는 국가

한국인들이 주변국 가운데 가장 친밀하게 인식하는 대상으로는 압도적으로 미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본 조사 시작 이래 지속적으로 나타난 경향성이다. 다만, 80%를 넘긴 2022년(80.6%), 2023년(82.1%)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76.3%를 기록하며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는 일본 11.4%, 중국 2.1%, 러시아 0.1% 순으로 선택했다. 눈 여겨 볼 지점은 본 조사 시작 이래 일본에 대한 친밀도 척도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일본의 친밀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2007년 첫 조사 당시 11.6%였다.

#### 위협적인 국가

한국인은 주변국들 가운데 북한을 가장 위협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작 이래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경향과 같으며 2025년에는 42.1%로 2016년(66.7%), 2017년(63.7%)에 비해 낮지만 2018년(32.8%), 2019년(30.8%) 보다는 높은 결과이다. 다만 최근 2023년 47.5%, 2024년 50.9%와 비교하면 1~2년 사이에 상당히 하락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을 뒤이어 중국 31%, 러시아 11.1%, 일본 10.3%, 미국 5.5% 순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에 대한 친밀도 상승과 비례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로도 일본이 2024년 5.4%에 비해 급격 상승한 점은 특이점이다.

### 2.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 미국

한국인의 절대적 대다수는 미국을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래 80%를 넘는 한국인들이 미국을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해 왔으며 2025년에도 마찬가지로 80.9%를 기록했다. 다만 전년 대비 하락폭은 역대 가장 큰 3.8%의 하락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경쟁(11.7%) 및 경계(6.7%) 대상으로 인식하는 수치에서도 나타나는데, 전년대비 각각 1.8%, 0.5% 상승하였다.

#### 일본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해 경쟁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조사결과 49.5%가 일본을 경쟁대상으로 인식했다. 특이한 점은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한 비율도 25%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경계(21.5%) 및 적대(3.9%)대상의 답변비율은 가장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중국**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해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경쟁대상과 경계대상 비율이 역전된 이래 지속된 경향성은 2025년 조사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40.9%가 경계대상으로 인식했으며 경쟁대상이라는 답변(29.6%) 보다 높았다. 다만 눈 여겨 볼 만한 변화는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지난 2020년(18.6%) 이래 2025년이 18.3%로 가장 높았으며, 적대 대상으로 바라보는 비율도 마찬가지로 2020년(11.4%)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11.2%를 기록하는 등 양극화 경향이 나타난다.

**러시아**

한국인들은 러시아에 대해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경쟁과 경계대상 비율이 역전된 이래, 2025년까지도 이러한 경향성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인의 52.3%가 러시아를 경계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쟁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23.4%)에 비해 두 배 넘게 높은 수치이다. 다만 이는 지난해 경계대상으로 답한 62.9%에 비해 10% 이상 하락한 수치이다. 더불어 2022년 이래 적대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꾸준히 높아진 가운데, 2025년에도 13.1%로 지난 4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흥미로운 지점은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는 비율은 거꾸로 2024년 6.6%에서 2025년 11.2%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주변국의 통일희망 정도**

주변국들 중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할 것으로 보는 비중이 가장 높지만, 전반적으로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은 37.1%로 나타났지만,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두 배가 넘는 62.9%를 기록했다. 일본(17.8%)과 중국(8.4%), 러시아(6.1%)도 한반도 통일을 희망할 것이라는 답변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 비율 보다 압도적으로 낮았다.

**주변국에 대한 통일의 협조 필요성**

주변국들의 통일희망 정도에 대한 부정적 경향성과 달리 주변국들의 한반도 통일 협조 필요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미국의 필요성은 92.4%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인 가운데, 일본(73.6%)과 중국(72.3%), 일본(58.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주변국과의 협력**

**통일: 남북, 한미, 한중**

“남북한 통일을 위해 ‘남북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025년 조사에서는 한미 간 협력(29.8%)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남북 간 협력(25.2%) 그리고 한중 간 협력(3.0%)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두 중요하다는 답변비율이 4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비핵화: 한미, 한중, 한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강화 필요 정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한미 간 협력이 96.5%로 압도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 간 협력과 한일 간 협력이 각각 83%, 76.6%로 뒤 따랐다. 이러한 수치들은 이전 조사결과와 큰 차이 없이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핵 공격 개시 시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군사조치 가능성**

북한 핵 공격 시 미국의 군사조치 가능성도 이전 조사의 경향성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군사조치 가능성에 대한 긍정 비율은 84.2%를 나타냈으며, 적극적 긍정층인 “매우 그렇다”가 22.1%로 지난해(17.0%)에 비해 약 5.1% 증가한 수치이다.

**5. 미중경쟁과 한반도**

**중국 부상에 대한 인식**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과 같은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도 안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이 48.5%로 3년 연속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는 답변이 37.9%, 도움이 안될 것이다 13.6%로 나타났다.

**미중 갈등심화 시 한국의 입장**

최근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53.5%의 사람들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율이 40.1%로 나타나,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율 6.4%를 압도했다.

**북중 협력**

북중 협력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우려통섭다’고 답한 비율이 88.2%로 ‘바람직하다’ 0.2%, ‘별로 상관없다’ 10.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6. 결론**

2025년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여전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 둘째, 일본에 대한 적대적 혹은 경계적 인식이 완화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 셋째, 우크라이나 전쟁 및 진영화 되는 국제정치의 신냉전적 정세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위협적 인식이 강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 넷째, 하지만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 인식 또한 강화시켜 이들에 대한 양극화된 인식변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다섯째, 이는 한미 동맹 중심 외교에서 국민들의 외교 다변화의 필요성과 전략적 균형에 대한 지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다. 미중 갈등 심화 가운데 한국인들은 중립적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미중 갈등 및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의 불확실한 신냉전적 질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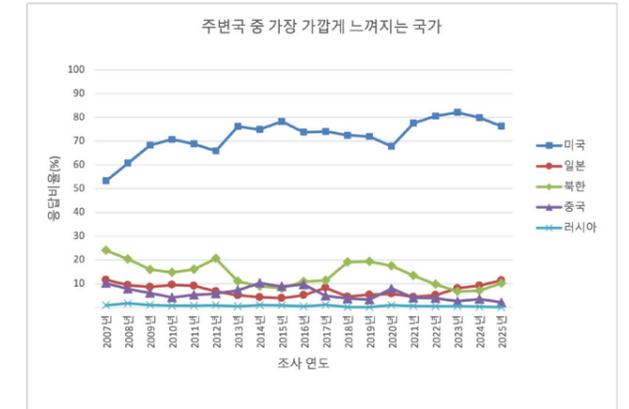
# 2025 통일의식조사

##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이유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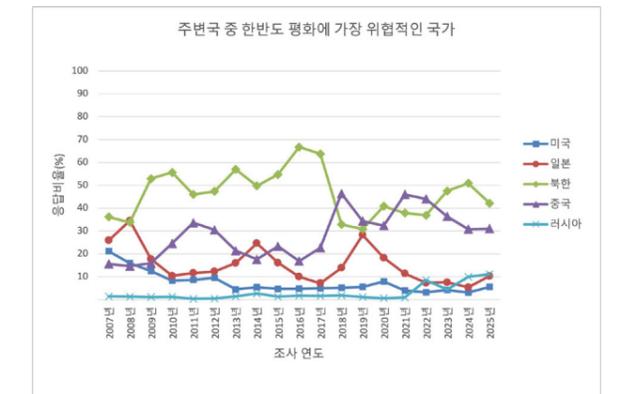
### 친밀하게 느끼는 국가

- 한국인들이 주변국 가운데 가장 친밀하게 인식하는 대상으로는 압도적으로 미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본 조사 시작 이래 지속적으로 나타난 경향성이다. 다만, 80%를 넘긴 2022년(80.6%), 2023년(82.1%)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76.3%를 기록하며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 위협적으로 느끼는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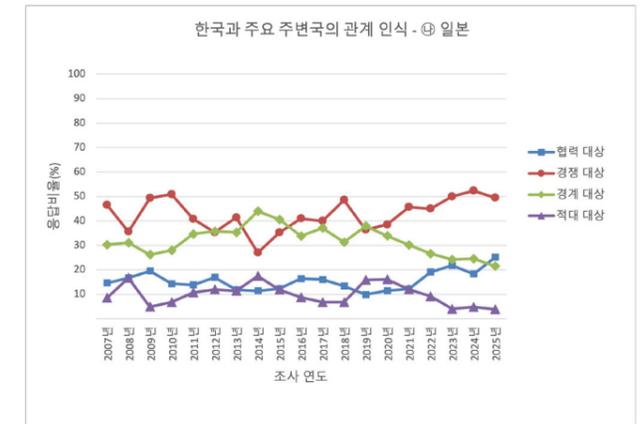
- 한국인은 주변국들 가운데 북한을 가장 위협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작 이래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경향과 같으며 2025년에는 42.1%로 2016년(66.7%), 2017년(63.7%)에 비해 낮지만 2018년(32.8%), 2019(30.8%) 보다는 높은 결과이다.



# 주변국에 대한 이미지: 인식과 태도

##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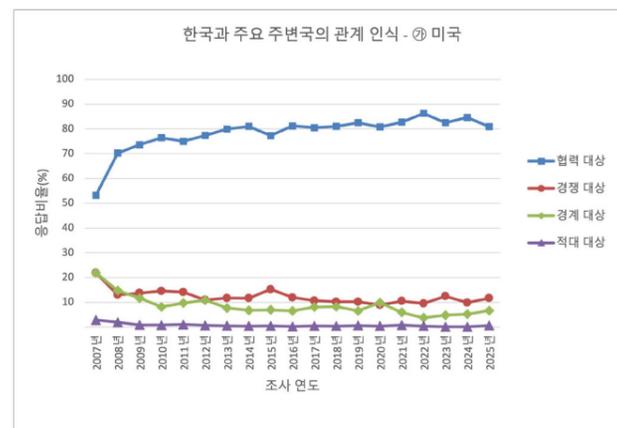
-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해 경쟁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조사결과 49.5%가 일본을 경쟁대상으로 인식했다. 특이한 점은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한 비율도 25%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경계(21.5%) 및 적대(3.9%)대상의 답변비율은 가장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 미국

### 미국의 국가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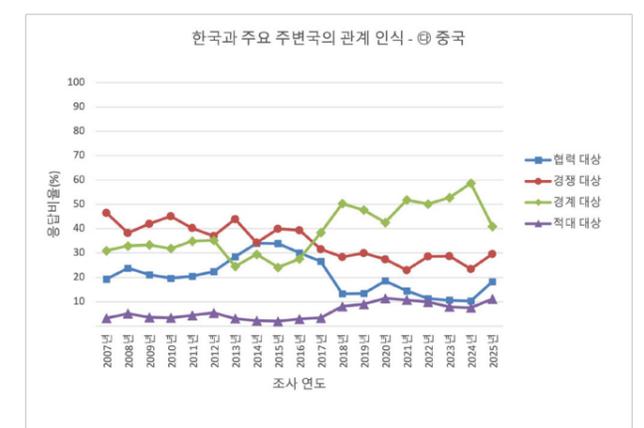
- 한국인의 절대적 대다수는 미국을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래 80%를 넘는 한국인들이 미국을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해 왔으며 2025년에도 마찬가지로 80.9%를 기록했다. 다만 전년 대비 하락폭은 역대 가장 큰 3.8%의 하락을 보였다.



## 중국

### 중국의 국가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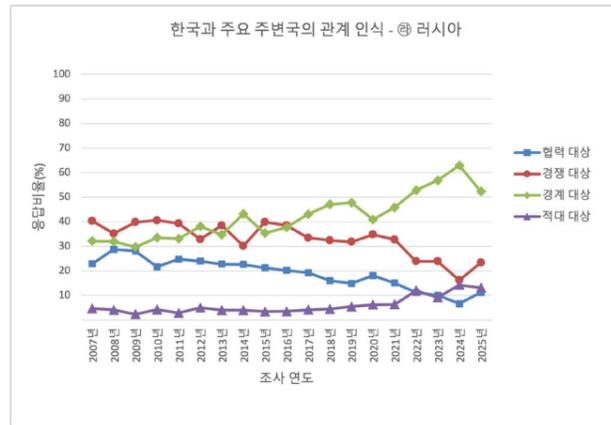
-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해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경쟁대상과 경계대상 비율이 역전된 이래 지속된 경향성은 2025년 조사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40.9%가 경계대상으로 인식했으며 경쟁대상이라는 답변(29.6%) 보다 높았다. 다만 눈 여겨 볼 만한 변화는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지난 2020년(18.6%) 이래 2025년이 18.3%로 가장 높았으며, 적대 대상으로 바라보는 비율도 마찬가지로 2020년(11.4%)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11.2%를 기록하는 등 양극화 경향이 나타난다.



## 러시아

###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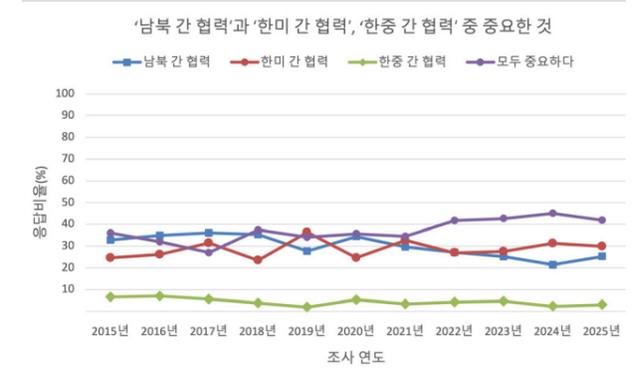
- 한국인들은 러시아에 대해 경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경쟁과 경제대상 비율이 역전된 이래, 2025년까지도 이러한 경향성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인의 52.3%가 러시아를 경제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쟁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23.4%)에 비해 두 배 넘게 높은 수치이다.



## 한반도와 주변국 협력

### 남북, 한미, 한중 간 협력 중요도

- 2025년 조사에서는 한미 간 협력(29.8%)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남북 간 협력(25.2%) 그리고 한중 간 협력(3.0%)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두 중요하다는 답변비율이 4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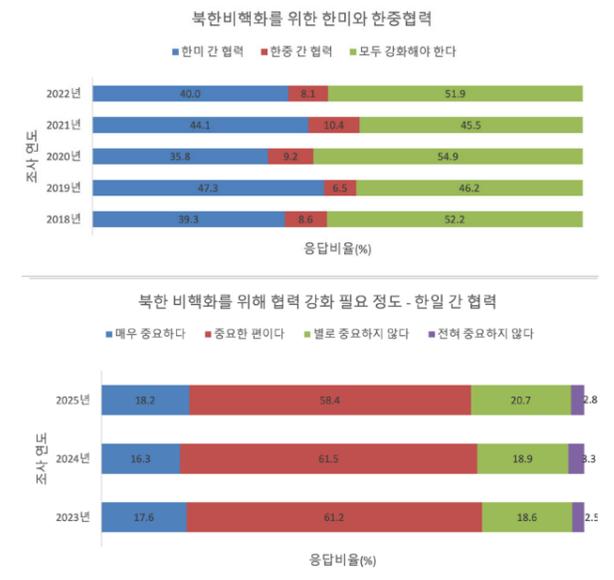


# 한반도와 주변국 협력

## 한반도와 주변국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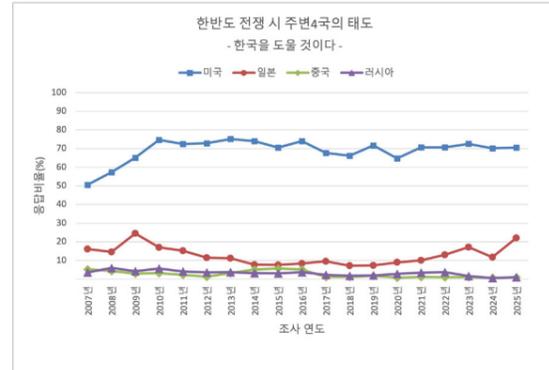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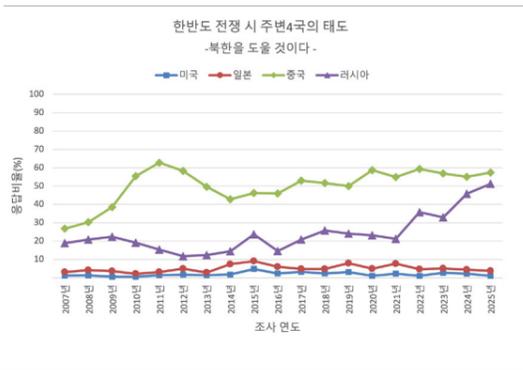
###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와 한중 협력

- 한미 간 협력이 96.5%로 압도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 간 협력과 한일 간 협력이 각각 83%, 76.6%로 뒤 따랐다.



## 한반도와 주변국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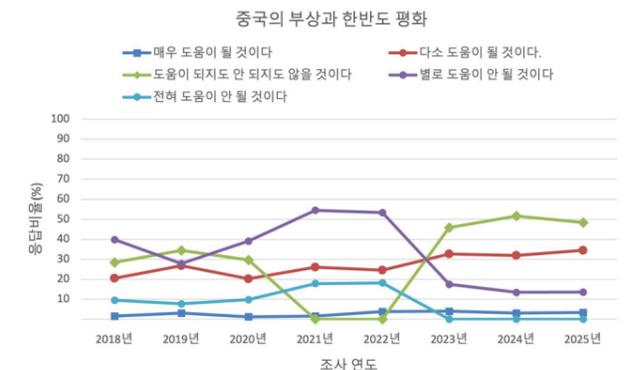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와 한중 협력



## 미국과 중국의 경쟁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평화

-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과 같은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이 48.5%로 3년 연속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37.9%, 도움이 안될 것이다 13.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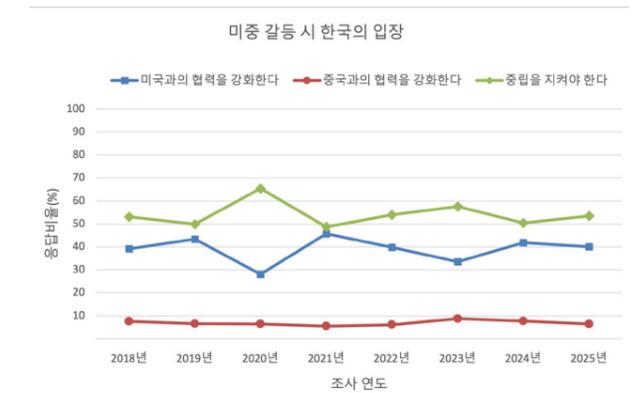


#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한반도

## 미국과 중국의 경쟁

미중 갈등시 한국의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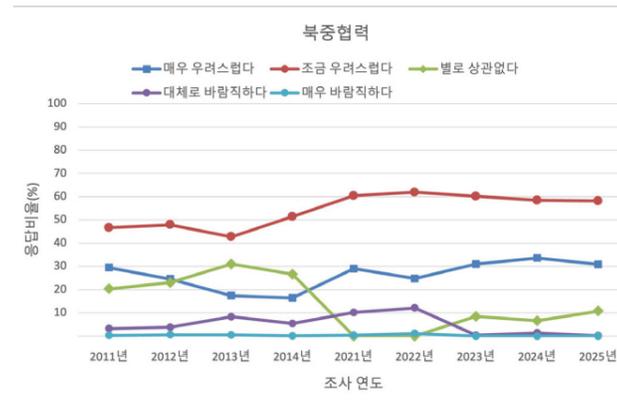
- 최근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53.5%의 사람들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율이 40.1%로 나타나,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율 6.4%를 압도했다.



## 미국과 중국의 경쟁

### 북중 협력

- 북중 협력에 대해서는 '우려프롭다'고 답한 비율이 88.2%로 '바람직하다' 0.2%, '별로 상관없다' 10.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 토론

김택빈(국방대 안보정책학과 조교수)

박민주(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 발표1. 통일·북한인식과 제21대 대통령선거 선택

이성우(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통일북한인식과 제21대 대통령선거 선택 (요약문)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정치문제에 대한 당파적 인식

- 대통령 직무평가 : 정치성향별로 다른 패턴을 보임. 진보성향은 2020년, 2021년 48%, 43%였던 긍정평가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16.12%로 떨어졌고, 2023년, 2024년 14.16%, 12.9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보수층은 2022년 이후 긍정평가가 40.96%에서 43.37%, 45.76%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 민주주의 운영 평가 : 전체 만족평가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락세였다가 2025년 만족평가가 급등함. 진보층에서는 2022년부터 58%에서 39%까지 하락했다가 82%로 급등하였지만, 보수층에서는 67%, 75%, 63%로 변동하다가 25년에 들어 44%로 급락함
- 주요 이슈로 등장한 기관 신뢰 : 검찰은 진보는 24년 신뢰 응답이 17.33%였다가 2025년에는 32.39%로 급등하였음. 법원과 중앙정부는 중도와 보수층에서 신뢰도가 하락하고, 진보층은 신뢰도가 상승함. 정치이슈의 중심에 있는 기관들에 대한 인식은 당파성을 따름

### □ 정치인식별 통일북한인식

- 통일견해 : 24~25년 기간 사이에 진보층의 통일긍정 의견이 증가하였으나, 보수층에서는 긍정의견이 소폭 감소함. 반드시 통일의견은 진보 보수 모두 감소함
- 통일필요성 : 24~25년 기간 사이에 진보층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증가하였고, 매우필요는 감소하였음. 보수층에서는 필요하다와 매우필요하다가 모두 감소하였음
- 통일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 : 당파적 패턴은 보이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경제적 부담과 통일이후 사회문제에 대한 걱정이 큼
- 북핵위협인식 : 진보층은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보수층에서는 위협인식이 4% 정도 증가하였음
- 대북인식 : 진보층은 지원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10% 정도 증가하였고, 중도와 보수층에서는 협력대상인식이 감소추세임. 반면에서 경계대상과 적대대상은 진보층이 감소하고, 중도와 보수층이 증가함. 한국의 정치적 변화가 대북인식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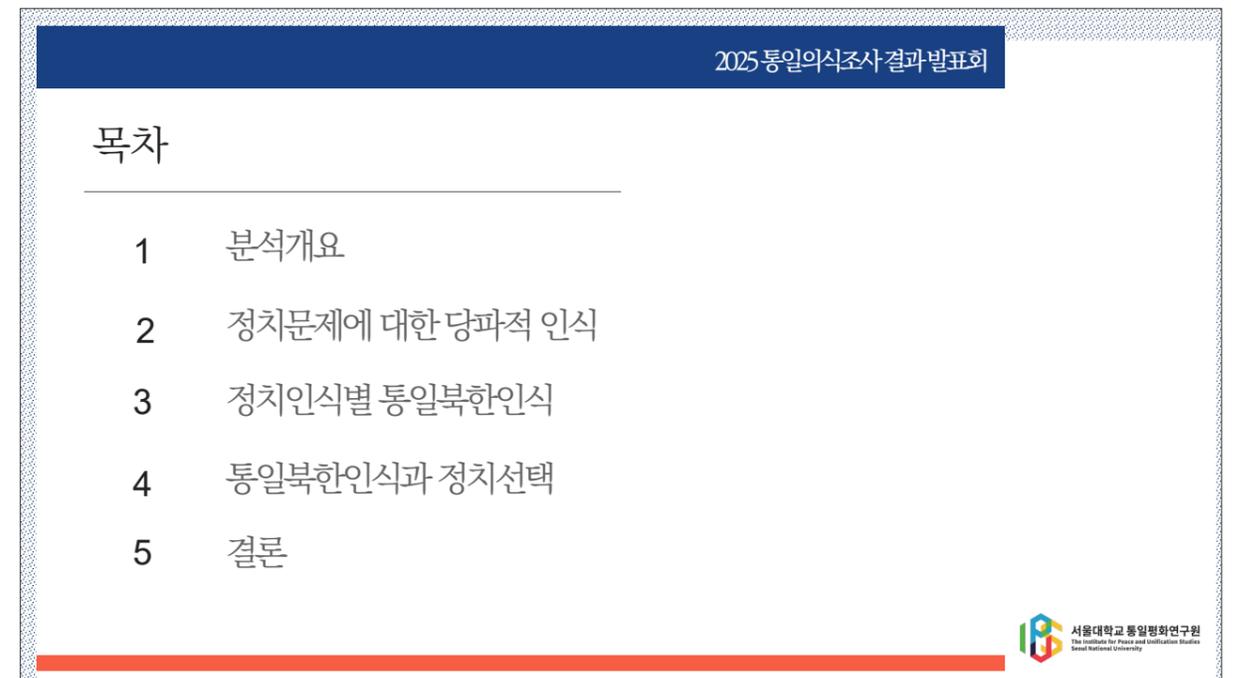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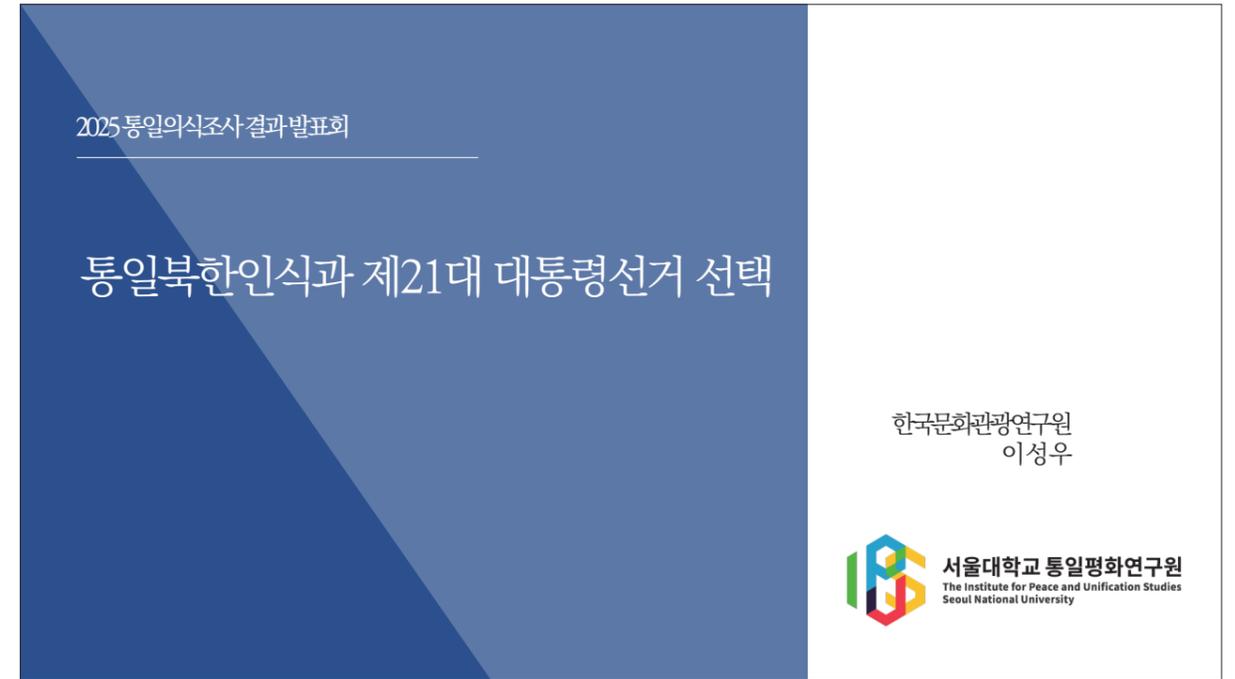
### □ 통일북한인식과 정치선택

- 정치성향별 영향 분석 :  
 진보 - 통일필요성, 통일견해, 대북인식(지원대상, 협력대상)에서 정(+)의 상관성, 북무력도발 인식과 통일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서는 부(-)의 상관성 보임  
 보수 - 북무력도발인식, 통일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서는 정(+)의 상관성을 보이며, 대북인식에서는 적대대상으로 보는 인식

- 보다 지원, 협력, 경쟁, 경계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약함. 진보와 보수층은 통일되지않아야 하는 이유와 대북인식에서 상반된 인식을 가진다는 유의미한 추정 결과 보임. 중도층은 대북인식경쟁서 협력대상과 경쟁대상으로서의 인식이 강함
- 보수 - 남성, 기독교, 교육수준, 연령 유의미한 상관성  
 진보 - 교육수준, 소득수준, 연령 유의미한 상관성
- 24년 국회의원총선거 : 민주당 선택과 국민의 힘 선택에 있어 통일북한인식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음. 진보와 보수 이념성향이 유의미성
  - 25년 대통령선거 : 이재명 후보 - 정치성향 진보 통일필요성 변수가 정(+)의 상관성, 북한콘텐츠온라인 접촉 변수가 부(-)의 상관성을 보임. 정치적으로 진보이면서 통일필요성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할수록 이재명후보를 선택하였으며, 북한의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접촉할수록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지 않음  
 김문수 후보 - 정치성향 보수, 북한콘텐츠온라인접촉, 교육수준, 연령이 정(+)의 상관성을 보임. 정치적으로 보수이며, 북한콘텐츠온라인접촉경험이 있거나, 교육수준과 연령이 높을수록 김문수 후보를 선택함

□ 결론

- 정치사회적 주요 이슈들에 대한 정치성향별 판단이 상반됨. 한국정치의 양극화 문제를 다시 확인함. 대통령직무평가 이외에도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인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도 정치성향별 상반된 인식 확인
- 24~25년 기간 사이에 진보층의 통일긍정의견과 대북유화인식이 증가함. 한국의 정치적 변화와 연관된 인식으로서의 통일북한인식의 변동을 고민할 필요 있음
- 정치성향별로는 통일대북인식에서 명확한 차이가 여전함. 반면에, 24년 총선 선택에 있어서는 통일북한인식은 유의미하지 않았음. 2025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이재명후보 선택층에서 통일필요성 유의미성 확인 - 북한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책 기대감 반영
- 북한문제는 의회내 다수당 변화보다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변화에 따라 정책이 변화하는 맥락에서 총선과 대선선택에서 통일북한인식변수의 영향력 차이 살펴볼 수 있음



# 1 분석 개요

2025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회

- 분석내용 : 정치성향별 통일북한인식의 차이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택에 미치는 영향
- 분석방법 : 로지스틱 회귀분석
- 통일북한인식 : 통일필요성, 통일의견, 북핵위협인식, 북무력도발인식, 통일되지않아야 하는 이유, 대북 인식, 대북정책목표
- 통제변수 : 북한방문경험, 북한문화접촉, 북한온라인접촉,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결혼유무, 기독교유무



# 2 정치문제에 대한 당파적 인식

2025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회

## • 대통령 직무평가

	진보	중도	보수
2020			
잘못하고 있음	17.43	48.86	33.71
잘하고 있음	48.37	41.68	9.95
2021			
잘못하고 있음	17.8	48.59	33.60
잘하고 있음	43.36	43.58	13.05
2022			
잘못하고 있음	39.35	47.76	12.89
잘하고 있음	16.12	42.92	40.96
2023			
잘못하고 있음	30.46	57.35	12.19
잘하고 있음	14.16	42.47	43.37
2024			
잘못하고 있음	27.77	57.37	14.85
잘하고 있음	12.92	41.33	45.76

- 대통령 직무평가 정치성향별로 다른 패턴을 보임
- 22년 정부교체 이후 진보와 보수 평가가 명확하게 상반됨
- 중도는 잘못하고 있다와 잘하고 있다가 비등하게 나타남



# 정치문제에 대한 당파적 인식

2025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회



# 2 정치문제에 대한 당파적 인식

2025 통일의식조사 결과 발표회

## • 민주주의 운영평가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만족않음	35.5	40.08	37.58	40.33	54.17	30.67
만족	64.5	59.92	62.42	59.67	45.83	69.33
진보						
만족않음	19.02	24.32	41.37	47.44	60.07	17.83
만족	80.98	75.68	58.63	52.56	39.83	82.17
보수						
만족않음	51.70	59.03	32.51	24.91	36.84	55.03
만족	48.3	40.97	67.49	75.09	63.36	44.97

- 민주주의 운영 평가: 만족평가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락세였다가 2025년 만족평가가 급등함
- 진보층에서는 58%에서 39%까지 하락했다가 82%로 급등
- 보수층에서는 67%, 75%, 63%로 변동하다가 25년에 들어 44%로 급락함



## 2 정치문제에 대한 당파적 인식

2025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 • 기관 신뢰

검찰	2024			2025		
	진보	중도	보수	진보	중도	보수
신뢰하지 않음	28.33	53.69	17.98	35.50	39.74	24.76
신뢰	17.33	53.86	28.81	32.39	42.61	25.00

법원	2024			2025		
	진보	중도	보수	진보	중도	보수
신뢰하지 않음	26.4	54.07	19.52	34.17	37.96	27.87
신뢰	21.52	53.28	25.2	35.19	44.44	20.37

중앙정부	2024			2025		
	진보	중도	보수	진보	중도	보수
신뢰하지 않음	29.04	54.65	16.31	25.53	42.91	31.56
신뢰	15.66	52.05	32.29	42.61	38.52	18.87

- 주요 이슈로 등장한 기관 신뢰
- 검찰은 진보는 24년 신뢰응답이 17.33%였다가 2025년에는 32.39%로 급등
- 법원과 중앙정부는 중도와 보수층에서 신뢰도가 하락하고, 진보층은 신뢰도가 상승함
- 정치이슈의 중심에 있는 기관들에 대한 인식은 당파성을 따름



## 2 정치인식별 통일북한인식

2025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 • 통일인식

		진보		중도		보수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통일견해	관심없음	12.29	7.23	10.39	12.32	11.07	13.42
	원래대로	27.3	24.58	33.02	33.68	27.86	33.56
	정신적 통일	47.44	52.29	45.43	43.94	43.13	43.96
	가능한 빨리 통일	8.87	13.01	7.91	7.8	14.5	6.38
통일필요성	반드시 통일	4.1	2.89	3.26	2.26	3.44	2.68
	전혀 필요없음	5.46	4.58	7.91	6.57	5.73	8.39
	필요없음	30.03	18.8	27.44	25.67	21.37	28.19
	보통	23.55	25.54	30.23	31.83	30.53	28.19
통일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	필요함	26.62	37.59	24.65	26.9	27.48	26.85
	매우 필요	14.33	13.49	9.77	9.03	14.89	8.39
	정치체제차이	19.11	18.55	17.98	20.33	24.81	18.79
	사회문화적차이	13.65	16.39	15.04	13.35	15.27	14.09
통일 후 경제 부담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	33.45	28.67	34.11	34.09	30.53	32.55
	통일 이후 사회적문제	28.33	31.33	28.68	27.31	25.95	30.54
	통일 이후 정세 불안정	5.12	5.06	4.03	4.93	3.44	3.69

- 24~25년 기간 사이에 진보층의 통일긍정적견이 증가함
- 통일필요성에서는 진보층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증가하였고, 보수층에서는 감소하였음
- 통일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서는 당파적 패턴은 보이지 않으나 대체로 경제적 부담과 통일 이후 사회문제에 대한 걱정이 큼



## 정치인식별 통일북한인식

2025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 2 정치인식별 통일북한인식

2025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 • 북한인식

		진보		중도		보수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북핵위협인식	전혀없다	1.02	1.20	1.24	2.05	0.76	1.01
	별로없다	11.26	11.81	12.56	14.58	15.27	14.43
	약간있다	57.68	57.11	57.52	57.7	53.05	50.34
	많이 있다	30.03	29.88	28.68	25.67	30.92	34.23
대북인식	지원대상	12.63	23.37	9.61	14.37	12.21	11.07
	협력대상	40.27	39.76	41.55	35.52	38.17	24.16
	경쟁대상	7.85	6.99	8.84	7.8	6.87	5.03
	경계대상	21.84	15.66	17.36	26.9	17.56	28.86
적대대상	17.41	14.22	22.64	15.4	25.19	30.87	

- 북핵위협인식은 진보층은 감소, 보수층은 증가하였음
- 대북인식 : 진보층은 지원대상 인식 증가하고, 중도와 보수층은 협력대상 인식이 감소추세
- 경계대상과 적대대상은 진보층이 감소하고, 중도와 보수층이 증가함
- 한국의 정치적 변화가 대북인식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침



2025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 통일북한인식과 정치선택



## 2 통일북한인식과 정치선택(정치성향별)

2025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종속변수 : 정치성향	모델1 (진보)		모델2 (중도)		모델3 (보수)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성별 (1_남성)	0.00701 (0.0598)	1.00	-0.102 (0.0533)	0.90	0.164* (0.0659)	1.17
결혼유무 (1_기혼)	-0.113 (0.0817)	0.89	0.141 (0.0736)	1.15	0.0451 (0.0947)	1.04
기독교	-0.122 (0.0831)	0.88	-0.232** (0.0712)	0.79	0.389*** (0.0783)	1.47
교육수준	0.235*** (0.0550)	1.26	0.0172 (0.0475)	1.01	-0.216*** (0.0559)	0.80
소득수준	0.125** (0.0386)	1.13	-0.0542 (0.0333)	0.94	-0.0405 (0.0397)	0.96
연령	-0.143*** (0.0311)	0.86	-0.182*** (0.0277)	0.83	0.450*** (0.0349)	1.56
_cons	-2.404*** (0.724)	0.09	1.110* (0.563)	3.03	-2.159*** (0.633)	0.11
N	5991		5991		5991	

- 보수 - 남성, 기독교, 교육수준, 연령 유의미한 상관성
- 진보 - 교육수준, 소득수준, 연령 유의미한 상관성



## 2 통일북한인식과 정치선택(정치성향별)

2025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종속변수 : 정치성향	모델1 (진보)		모델2 (중도)		모델3 (보수)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통일필요성	0.109** (0.0348)	1.11	-0.0447 (0.0375)	0.95	-0.0604 (0.0375)	0.94
통일견해	0.0949* (0.0417)	1.09	-0.0405 (0.0372)	0.96	-0.0459 (0.0456)	0.95
북핵위협인식	0.0501 (0.0457)	1.05	-0.0399 (0.0408)	0.96	-0.00881 (0.0448)	0.99
북무력도발인식	-0.145*** (0.0409)	0.86	-0.0237 (0.0364)	0.97	0.217*** (0.0448)	1.24
정치체제 차이	-0.449** (0.153)	0.63	0.0778 (0.142)	1.08	0.498** (0.182)	1.64
통일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 (베이스_정체불안)	-0.510** (0.158)	0.60	0.173 (0.145)	1.18	0.414* (0.187)	1.51
경제적 부담	-0.279 (0.147)	0.75	-0.0129 (0.137)	0.98	0.421* (0.177)	1.52
통일이후 사회문제	-0.315* (0.149)	0.72	0.0255 (0.139)	1.02	0.412* (0.179)	1.50
지원대상	0.674*** (0.112)	1.96	-0.0719 (0.0997)	0.93	-0.023*** (0.118)	0.53
협력대상	0.452*** (0.0946)	1.57	0.232** (0.0905)	1.26	-0.819*** (0.0905)	0.44
경쟁대상	0.249 (0.149)	1.28	0.382** (0.123)	1.46	-0.786*** (0.153)	0.45
경계대상	0.134 (0.104)	1.14	0.0690 (0.0864)	1.07	-0.211* (0.0984)	0.80

- 진보 - 통일필요성, 통일견해, 북 무력도발 인식, 통일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 대북인식
- 보수 - 북무력도발인식, 통일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 대북인식
- 진보와 보수 통일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와 대북인식에서 상반된 유의미한 추정결과 보임
- 대북인식에서 중도층은 협력대상과 경쟁대상으로서의 인식이 강함



## 2 통일북한인식과 정치선택(24년 총선선택)

2025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종속변수 : 총선투표	모델1 (민주당)		모델2 (국민의힘)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정치성향 진보	1.552*** (0.157)	4.72	-0.269 (0.222)	0.76
정치성향 보수	-1.067*** (0.227)	0.34	2.410*** (0.182)	11.13
교육수준	0.0610 (0.126)	1.06	-0.443** (0.141)	0.64

- 2024년 투표정당 선택에 통일북한인식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음
- 진보와 보수 이념성향이 유의미성



## 2 통일북한인식과 정치선택(25년 대선선택)

2025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종속변수 : 대선후보투표	모델1 (이재명)		모델2 (김문수)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정치성향 진보	1.585*** (0.170)	4.87	-1.443*** (0.238)	0.23
정치성향 보수	-2.274*** (0.224)	0.10	2.582*** (0.204)	13.21
통일필요성	0.172* (0.0856)	1.18	-0.0153 (0.0984)	0.98
북한콘텐츠온라인접촉	-0.474** (0.161)	0.62	0.508** (0.185)	1.66
성별 (1_남성)	0.110 (0.146)	1.11	-0.337* (0.170)	0.71
결혼유무 (1_기혼)	0.145 (0.195)	1.15	0.157 (0.233)	1.16
기독교	-0.0505 (0.203)	0.95	0.309 (0.215)	1.36
교육수준	-0.208 (0.148)	0.81	0.346* (0.167)	1.41
소득수준	-0.0284 (0.0972)	0.97	0.152 (0.113)	1.16
연령	0.0807 (0.0756)	1.08	0.349*** (0.0897)	1.41

- 이재명 후보 - 정치성향과 통일필요성, 북한콘텐츠온라인 접촉
- 김문수 후보 - 정치성향과 북한콘텐츠온라인접촉, 교육수준, 연령



Thank you

## 2 결론

2025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 정치사회적 주요 이슈들에 대한 정치성향별 판단이 상반됨. 한국정치의 양극화 문제를 다시 확인함
- 대통령직무평가 이외에도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인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도 정치성향별 상반된 인식 확인
- 24~25년 기간 사이에 진보층의 통일긍정의견과 대북유화인식이 증가함. 한국의 정치적 변화와 연관된 인식으로서의 통일 북한인식의 변동을 고민할 필요 있음
- 정치성향별로는 통일대북인식에서 명확한 차이가 여전히 있음. 반면에, 24년 총선 선택에 있어서는 통일북한인식은 유의미하지 않았음
- 2025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이재명후보 선택층에서 통일필요성 유의미성 확인 - 북한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책 기대
- 북한과의 문제는 의회내 다수당 변화보다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변화에 따라 정책이 변화하는 맥락에서 총선과 대선결과에 서의 통일북한인식변수의 영향력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음





## 발표2. 남북한 핵인식 추세와 전망

조현주(연세대학교 강사)

## 남북한 핵 인식 추세와 전망 (요약문)

조현주 (연세대학교 강사)

### ■ 2025년 통일외식조사: 핵무장에 대한 의견

- 최근 2년간 유사한 찬성 비율 유지(2024년: 53.8%, 2023년: 51.5%)
  - 찬성(매우+다소): 51.8%
  - 보통/중립: 30.4%
  - 반대(매우+다소): 17.8%

### ■ 남한 정부 성향과 핵무장 인식

- 2007-2025년 통일외식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남한 핵무장 인식의 주요 추세와 전망
  - 추세
    - 핵무장 관련 문항이 추가된 2013년부터 2025년까지의 자료 분석
    - 보수 정부 시기(2013-2016, 2022-2024년)에는 진보 정부 시기(2017-2021, 2025년)보다 핵무장 지지도가 더 높게 나타남
    - 북핵 위협 인식이 높아질 경우, 진보 정부하에서도 핵무장 찬성도가 상승하여 보수 정부와 유사한 수준에 이룸
  - 전망
    - 진보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 변화에 따라 핵무장 지지도 감소 가능성
    - 그러나 북핵 위협 인식이 높아질 경우, 핵무장 지지도 증가 가능성도 존재

### ■ 안보 환경 변화와 남북한 핵 인식 추세와 전망

- 안보 환경 변화와 남북관계에 따른 남북한 핵 인식 분석
  - 분석 목적: 안보 환경(북한 미사일 발사, 핵실험, 정상회담, 주변국 위협 등)과 남북관계에 따른 남북한 핵 인식 변화 방향과 수준을 분석
  - 분석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외식조사(2007-2025)와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2011-2020)를 활용한 통합 분석
- 주요 결과
  - 남북관계를 비우호적(경계 혹은 적대 대상)으로 인식할수록, 남한 핵무장 지지도와 북한 핵보유 지지도 모두 증가하는 경향
  -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가 증가할수록, 남한 핵무장 지지도와 북한 핵보유 지지도 모두 상승하는 경향
  - 정상회담은 남한의 핵무장 지지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북한 핵보유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이 증가하는 양상
- 향후 분석 방향: 남북한 통합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정교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추세 분석과 전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남북한 핵 인식 추세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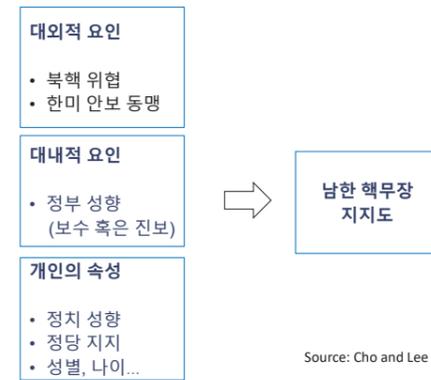
1. 남한 정부 성향과 핵무장 인식
2. 안보 환경 변화와 남북한 핵 인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외식조사 학술회의 (심화분석) | 조현주  
2025.10.1

조현주. (2025.10.1). 남북한 핵 인식 추세와 전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외식조사 학술회의: 심화분석 발표.

### 1. 남한 정부 성향과 핵무장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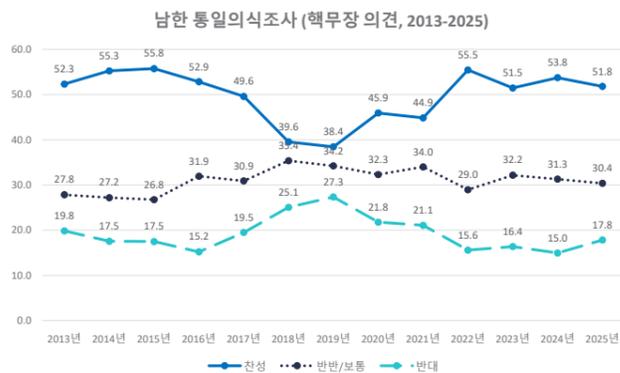
## 핵무장 인식 형성 요인



Source: Cho and Lee (2024)

- H1: 북핵 위협 인식이 증가할수록 핵무장 지지 가능성이 높아진다
- H2: 한미 안보 동맹 신뢰도는 핵무장 지지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 H3: 북핵 위협 인식과 핵무장 지지 간의 상관관계는 정부 성향 (보수 또는 진보)의 영향을 받는다
- H4a: 보수 성향의 개인은 핵무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
- H4b: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개인은 핵무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
- H5: 20대(1993년~2003년 출생)는 다른 세대에 비해 한국의 핵 정책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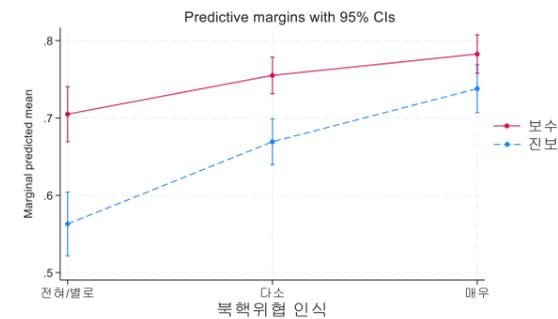
## 남한 통일외식조사 (2025년 핵무장 의견)



- 2025년 조사기간: 8월 08일 - 9월 01일
-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1= 매우 반대  
2= 다소 반대  
3= 보통이다  
4= 다소 찬성  
5= 매우 찬성
- 2025년 핵무장 의견  
- 찬성(매우+다소): 51.8%  
- 반반/보통: 30.4%  
- 반대(매우+다소): 17.8%

### 1. 남한 정부 성향과 핵무장 인식

## 남한 핵무장 인식 추세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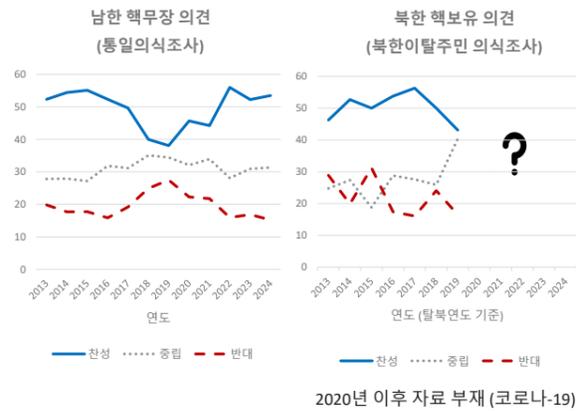
### 추세 (2013-2025년)

- 보수 정부 시기 (2013-2016, 2022-2024년)에는 진보 정부 시기 (2017-2021, 2025년)보다 핵무장 지지도가 더 높음
- 북핵 위협 인식 상승 → 진보 정부하에서도 핵무장 찬성도가 상승하여 보수 정부와 유사한 수준

### 전망

- 대북정책 변화에 따른 핵무장 지지도 감소 가능성
- 북핵 위협 인식 상승 시, 핵무장 지지도 증가 가능성

# 안보 환경 변화와 남북한 핵 인식



- 안보 환경과 남북관계
  - 안보 환경: 미사일 도발, 핵실험, 정상회담, 주변국 위협
  - 남북관계 인식 (우호/비우호)
- 안보 환경 변화·남북관계 → 남북한 핵 인식
  - 동일 혹은 상이한 반응?
  -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 분석 목적
  - 남북한 핵 인식 형성 요인 및 추세 파악
  - 향후 핵 인식 전망 (prediction)

## 2. 안보 환경 변화와 남북한 핵 인식

# 데이터와 연구방법론

- 남한 통일외식조사와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통합 분석 (Country 변수: 1 = 남한, 2 = 북한)
- 종속변수
  - 남한: 핵무장 지지도
  - 북한: 핵보유 지지도
  - 절대 수치 비교가 아닌, 지지 경향성 (동일 vs 상이)에 대한 통계적 분석 목적
- 공통변수: 우측 참조
- 남북한 별도 변수
  - 핵심 변수: 연속형 변수로 처리 (우측 참조) (해당 사항이 없는 남한/북한 경우 0 값으로 입력)
- ※ 일부 누락된 인구학적 변수: 통합모델에 반영 제한, 차후 남북한 개별 모델과 통합 모델과 비교 예정 (Robustness checks)
- 통계 모델: Logistic regression

	남한	북한
종속변수	핵무장	핵보유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5점 → 2점 척도, 중립 제외)	“북한에 계속, 북한이 핵보유를 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점 → 2점 척도, 중립 제외)
공통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관계 인식 (우호 vs 비우호)</li> <li>• 대남/대북 무력도발 가능성 (4점 척도)</li> <li>• 주변국 (미국, 남한/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위협 인식</li> <li>• 성별, 나이</li> </ul>	
남북한 별도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미사일 발사 횟수 (CSIS database)</li> <li>• 북한 핵실험 차수</li> <li>• 주요 회담 여부 (2018, 2019년)</li> <li>• 남한 정부 성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체사상 자부심 (4점 척도)</li> <li>• 노동당원 (x)</li> <li>• 한국 문화 경험 (x)</li> <li>• 거주 지역 (x)</li> <li>• 직업/교육/소득 (x)</li> </ul>

## 2. 안보 환경 변화와 남북한 핵 인식

# 조사 개요

### 남한 통일외식조사 (2007-2024)

- 설문 시기: 매년 (7-8월)
- 모집단: 전국 17개 시도(세종은 충남에 포함),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
- 표본추출방법: 다단계 층화 계통 추출법
- 표본 크기: 매년 1,200명 (총 21,617명)

###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2011-2020)

- 설문 시기: 매년 (4-9월)
- 조사 방법: Snowball sampling, 탈북 1년 미만의 탈북민 대상
- 표본 크기: 매년 약 120명 (총 1,241명)
- Selection Bias problem

## 2. 안보 환경 변화와 남북한 핵 인식

# 주요 가설

### 안보 환경 변화와 남북관계 → 남북한 핵 인식

#### 남북관계와 외부 위협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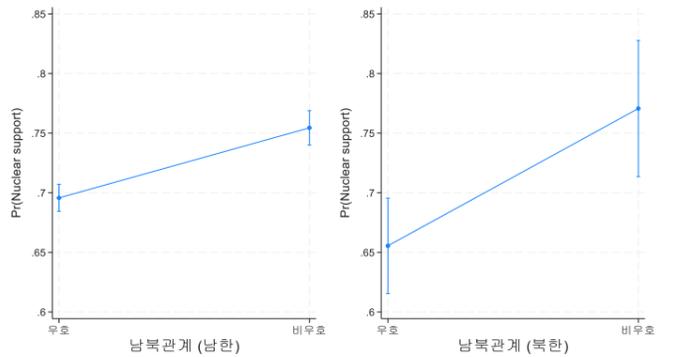
- H1: 남북관계 비우호적 인식 ↑ → 핵 인식 찬성 ↑
- H2: 주변국(미국, 남한/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위협 인식 ↑ → 핵 인식 찬성 ↑
- H3: 대남/대북 무력도발 가능성 ↑ → 핵 인식 찬성 ↑

#### 안보 환경 (주요 event)

- H4: 미사일 도발 ↑ → 핵 인식 찬성 ↑
- H5: 핵실험 차수 → 핵 인식 찬성 ↑
- H6: 정상회담 → 핵 인식 찬성 ↓

2. 안보 환경 변화와 남북한 핵 인식

### 주요 결과 - 남북관계 인식



- H1: 남북관계 비우호적 인식 ↑ → 핵 인식 찬성 ↑
- 남한·북한 간 차이 marginally significant (p=0.073)

Note: 95% 신뢰구간. 핵무장/핵보유에 대한 의견은 5점 척도에서 중립 의견을 제외하고 찬성과 반대로 구분하여 분석. 이에 따라 찬성 비율은 중립 의견을 포함했을 때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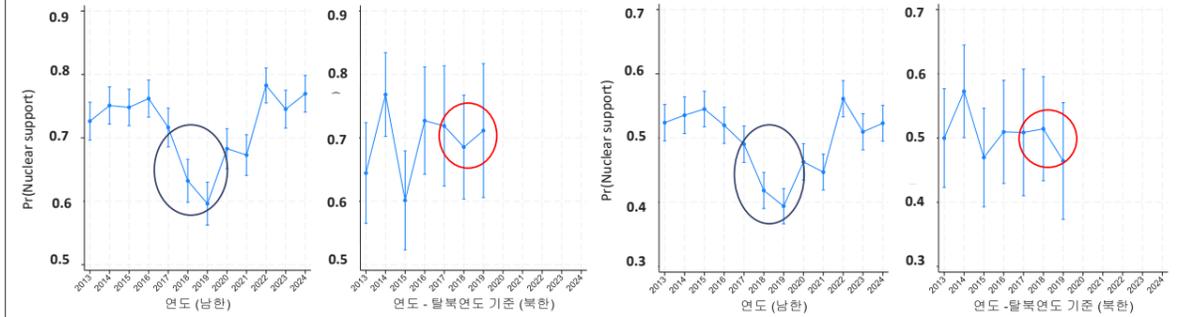
2. 안보 환경 변화와 남북한 핵 인식

### 주요 결과 - 정상회담

H6: 정상회담 → 핵 인식 찬성 ↓

핵 인식 지지도 (중립 제외)

핵 인식 지지도 (중립 포함)



Note: 95% 신뢰구간. 핵무장/핵보유에 대한 의견은 5점 척도에서 중립 의견을 제외하고 찬성과 반대로 구분하여 분석. 이에 따라 찬성 비율은 중립 의견을 포함했을 때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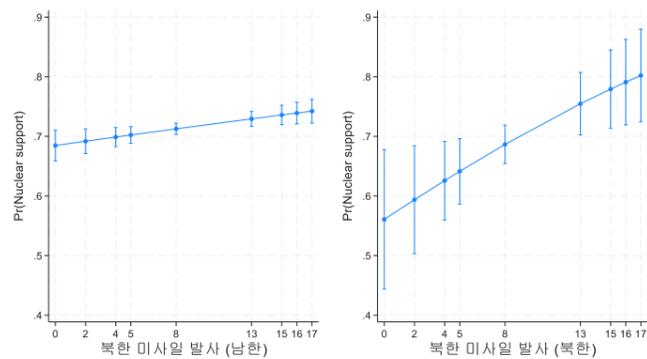
Note: 95% 신뢰구간. 핵무장/핵보유에 대한 의견은 중립 의견을 포함한 5점 척도 사용.

- Year-fixed effects model
- 남한·북한 간 차이: 2018년 p=0.066, 2019년 p=0.024

- Year-fixed effects model
- 남한·북한 간 차이: 2018년 p=0.087, 2019년 p=0.251

2. 안보 환경 변화와 남북한 핵 인식

### 주요 결과 - 미사일 발사 횟수



- H4: 미사일 발사 ↑ → 핵 인식 찬성 ↑
- 남한·북한 간 차이 significant (p=0.047)

Note: 95% 신뢰구간. 핵무장/핵보유에 대한 의견은 5점 척도에서 중립 의견을 제외하고 찬성과 반대로 구분하여 분석. 이에 따라 찬성 비율은 중립 의견을 포함했을 때보다 높게 나타남.

2. 안보 환경 변화와 남북한 핵 인식

### 안보 환경 변화와 남북한 핵 인식 전망

남한

북한

Work in Progress

## 함의

- 남한 핵무장 인식
  - 정부 성향 → 핵무장 찬성도 낮아질 수 있으나, **북핵 위협인식**이 높아지면 상승 가능성
  - 주요 영향 변수: 남북관계, 미사일 발사, 정상회담 등
  - 향후 한미 안보 동맹 영향에 대한 추가 분석 및 반영 필요
- 북한 핵보유 인식
  - 상기 주요 변수에 대해 남한과 유사한 경향성 예상
  - 북한체제인식 (주체사상)과 강한 연관성: 탈북민 자료의 Selection bias 고려
- Robustness checks: 남한-북한 개별 모델과 통합 모델의 비교, selection bias
- 향후 분석 방향
  - 통합 모델 타당성 검토 및 정교화
  - 이에 기반한 추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참고문헌

김범수·김병로·장용석·이종진·이유철·조현주·김영호 「2025 통일의식조사」(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5).

김병로·김학재·송원준·조동준·최은영·이정철 「김정은 정권 10년: 북한주민 통일의식」(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CSIS Beyond Parallel. 2019. "Database: North Korean Provocation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https://beyondparallel.csis.org/database-north-korean-provo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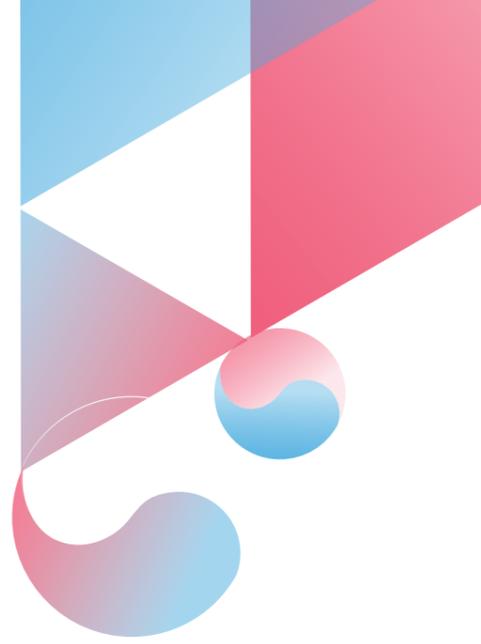
Hyun Joo Cho and Jinwon Lee. (2024). Understanding South Korean Public Attitudes Toward Nuclearization: Trends Over a Decade Through External, Domestic, and Individual Perspectives. Korea Observer, 55(4), 573-624.

## 토론

황지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정성철(명지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 토론

정기웅(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교수)

송영훈(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현경(전 MBC 통일방송연구소 소장)

김민서(조선일보 기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